

국민을 먼저 생각합니다

KB연구보고서

2014 한국 富者 보고서

2014년 7월

Contents

- I. 한국 부자 현황 · 3
 - 1. 한국 부자의 규모 · 4
 - 2. 자산형성 과정과 보유자산의 구조 · 8
 - 3. 부자에 대한 인식과 목표자산 · 11

- II. 자산 투자 행태와 전망 · 13
 - 1. 자산 유형별 포트폴리오 현황 · 14
 - 2. 자산 포트폴리오의 변화와 전망 · 19
 - 3. 자산관리 관심사와 투자 의향 · 24
 - 4. 금융기관 이용 행태와 인식 · 28

- III. 금융에 대한 인식과 미래 준비 · 31
 - 1. 투자성향과 금융지식 · 32
 - 2. 은퇴 및 노후 준비 · 35
 - 3. 상속·증여에 대한 인식과 계획 · 40

- IV. 소득 및 소비 특성과 사회 인식 · 43
 - 1. 소득 및 소비지출 · 44
 - 2.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인식과 사회공헌 · 48

발행인	임영록
편집인	조경엽
발행처	KB금융지주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 (을지로2가) (T.02-2073-7114)
연구자	노현곤(hyungon.noh@kbf.com), 김희규(heekyu.kim), 김예구(yeigoo.kim)
발행일	2014년 7월 10일
편집인쇄	신우씨앤피(T.02-2267-4112)

Part

I

한국 부자 현황

2013년 말 기준 한국 부자(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인 개인)는 약 16만7천명으로 2012년에 비해 2.5%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부자의 수는 최근 몇 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3년의 증가율은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한국 부자의 47%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나 서울의 부자 수 증가율은 전국 평균보다 소폭 낮은 수준이고, 특정 지역의 쏠림 현상도 점차 약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부자는 금융 및 기타자산에 비해 부동산 비중이 높은 자산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2012년 이후 부동산자산 비중의 하락세와 금융자산 비중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자산 비중의 하락은 인위적인 투자 조정보다는 보유 부동산자산의 가치 하락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금까지 한국 부자의 자산 형성에 부동산 투자가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것과 같이, 최근의 부동산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향후 자산 증식을 위한 방법으로 부동산 투자 의향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1. 한국 부자의 규모
2. 자산형성 과정과 보유자산의 구조
3. 부자에 대한 인식과 목표자산

01

한국 부자의 규모

2013년 말 기준
‘한국 부자’는
16만7천명으로,
2012년의
16만2천명에 비해
2.5%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자(富者)’ 또는 ‘고자산가(HNW¹⁾)’에 대한 절대적 기준은 없지만, 세계적으로 볼 때 ‘미화 1백만 달러 이상의 투자자산을 보유한 개인’을 고자산가라 정의하고 이들의 자산과 투자행태 등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의 컨설팅 회사가 발표한 보고서²⁾에 따르면, 2013년 기준 1백만 달러 이상의 개인금융자산을 보유한 백만장자가 세계적으로 1,630만 가구에 이르며 2012년에 비해 260만 가구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KB경영연구소의 이전 연구³⁾와 동일하게 ‘금융자산⁴⁾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개인’으로 ‘한국 부자’를 정의하고, 이들의 보유자산 구조와 투자 행태를 중심으로 소득과 지출, 사회적 인식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부자의 규모는 ‘개인 금융자산 로렌즈곡선⁵⁾’을 통해 추정되었으며, 자산운용 행태와 인식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14 한국 고자산가 투자행태 조사’를 실시하여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2013년 말 기준 한국 부자(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인 개인)는 약 16만7천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2012년의 16만3천명에 비해 약 2.5% 증가한 규모이다. [그림1] 한국 부자 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일시적으로 감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13년의 부자 수 증가율(전년 대비)은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2012년의 증가율 14.8%에 비해서도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낮은 예금금리, 부동산 시장 침체, 박스권에 갇힌 주식시장, 내수경기 부진 등이 지속되며 보유자산의 투자성과가 과거에 비해 낮아진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이들 한국 부자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약 369조원(1인당 평균 22억1천만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체 국민의 상위 0.33%가 가계 총 금융자산의 14%를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2]

1) High Net Worth Individuals

2) ‘Global Wealth 2014: Riding a Wave of Growth’, BCG(20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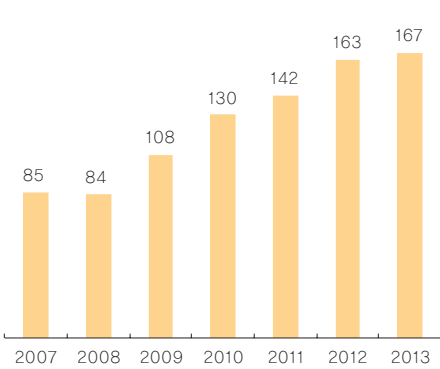
3) ‘한국 富者 연구: 자산 형성과 투자행태, 라이프스타일’ (2011.7), ‘2012 한국 富者 보고서’ (2012.7), ‘2013 한국 富者 보고서’ (2013.6)

4) 예적금, 보험, 주식, 채권 및 각종 금융투자상품에 예치된 자산의 합을 의미하며, 거주 및 투자용 부동산, 수집품 및 기타의 실물자산은 제외

5) 금융자산 통계(한국은행), 가구자산 분포(통계청), 개인소득 분포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 통계(국세청), KB국민은행 개인별 예치자산 분포 등을 이용한 KB경영연구소의 추정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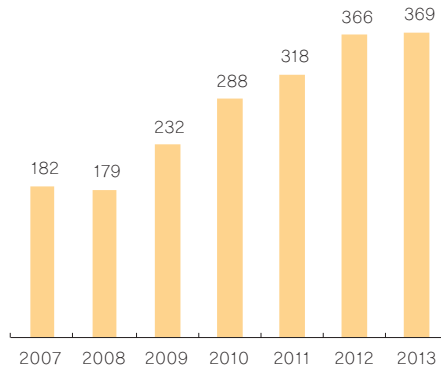
[그림 1] 한국 부자 수

(단위: 천명)



[그림 2] 한국 부자의 금융자산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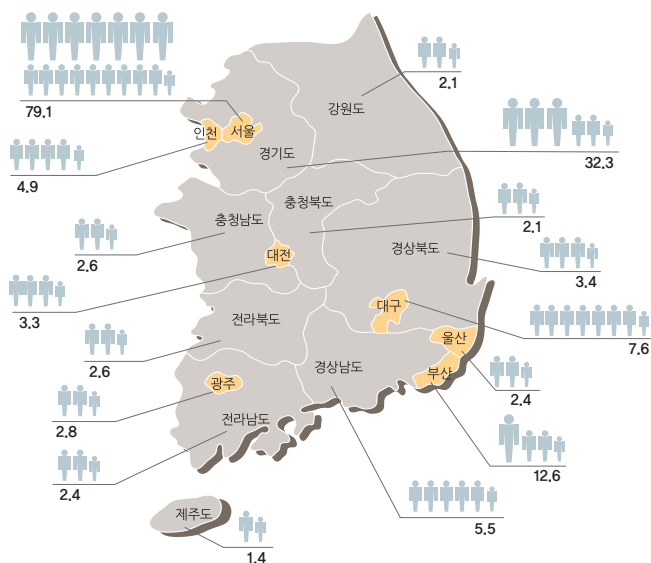


한국 부자 16만7천명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약 7만9천명으로 전국 부자 수의 47.3%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경기 3만2천명(19.3%), 부산 1만3천명(7.6%)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3] 한편, 전년 대비 부자 수 증가율 면에서는 서울과 부산이 각각 1.0%로 전국 평균 2.5%에 비해 낮은 수준인 반면, 울산은 9.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각 지역의 인구 대비 부자 수 비율은 서울이 0.7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부산이 0.36%로 대구(0.30%) 및 경기

서울 지역에 전국 부자의 47%가 집중되어 있으나, 부자 수 증가율 면에서는 전국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그림 3] 전국 지역별 부자 수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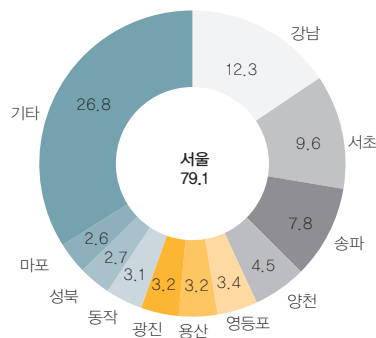


(0.26%)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서울 및 수도권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 내에서는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약 3만명으로 서울 부자 수의 37.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순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4] 경기도의 세부 지역별 부자 수는 성남시가 약 6천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용인시, 고양시, 수원시 순이었다. [그림 5] 서울 부자 수에서 강남3구 비중이 2009년 39.2%에서 2013년 37.5%로 하락하였고, 경기도 부자 수에서 성남시, 용인시, 고양시의 비중도 같은 기간 45.2%에서 44.0%로 하락하여 지역적 쏠림 현상이 과거에 비해 약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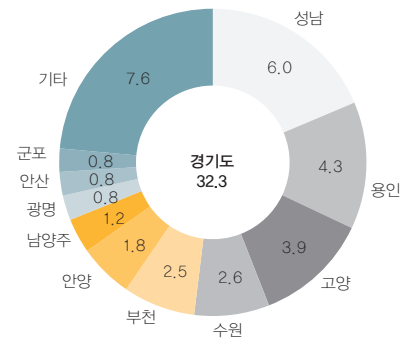
[그림 4] 서울 구(區)별 부자 수

(단위: 천명)



[그림 5] 경기도 시(市)별 부자 수

(단위: 천명)



6대 광역시 중 부산은 해운대구의 부자 수가 가장 많으며, 대구 수성구의 경우 광역시 구 단위에서는 부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그 외 인천 연수구, 대전 유성구, 광주 북구, 울산 남구 등이 해당 광역시 내에서 상대적으로 부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표 1]

[표1] 6대 광역시 구(區)별 부자 수

(단위: 천명)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해운대	26	수성	3.1	연수	1.1	유성	1.3	북	0.9	남	1.3
남	1.3	달서	1.9	부평	1.0	서	1.0	서	0.8	중	0.6
부산진	1.2	북	0.9	남동	0.9	중	0.6	남	0.5	기타	0.6
동래	1.2	동	0.5	남	0.7	기타	0.4	기타	0.6		
기타	6.3	기타	1.1	기타	1.3						
계	126	계	7.6	계	4.9	계	3.3	계	2.8	계	2.4

이러한 한국 부자들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2014 한국 고자산가 투자행태 조사⁶⁾’를 시행하고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후로는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한국 부자의 자산구조와 투자행태, 각종 인식과 전망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6) 2014년 4월부터 2개월간 전국 고자산가 6백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응답자 중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보유자 400명을 중심으로 분석

02

자산형성 과정과 보유자산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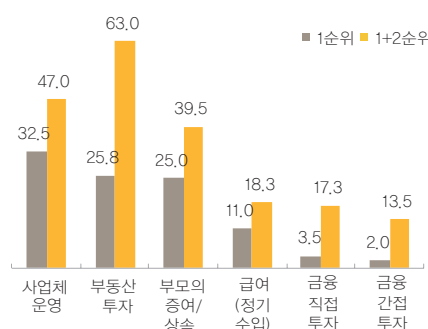
한국 부자가 현재 자산을 축적한 주된 방법은 사업체 운영과 부동산 투자이며, 연령이 높은 부자일수록 부동산 투자 의존도가 높았다.

부(富)의 형성과 증식은 경제의 역동성이나 산업구조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산업화를 통한 현대적 기업 경제가 발전하기 이전에는 ‘토지’가 자산 증식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고, 현대화 이전 한국의 경우에도 부자의 자산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소는 ‘토지’였다. 이후 도시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주택과 건물을 포함하는 ‘부동산’이 자산 증식의 중요한 매개가 되고, 경제 규모 확대와 함께 기업경영, 개인사업, 전문직, 금융투자 등으로 그 수단이 다양화되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상속과 증여를 통한 세대간 부의 이전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현재 한국의 부자들은 어떠한 과정으로 자산을 축적해 왔는지 살펴보자.

한국 부자가 현재의 자산을 축적한 가장 주된(1순위) 방법은 ‘사업체 운영’(32.5%)이며, ‘부동산 투자’(25.8%)와 ‘부모의 증여/상속’(25.0%)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산 축적의 여러 방법(1+2순위)을 종합해보면 부동산 투자가 63%를 차지하여 부자들의 현재 자산 축적에 중요한 수단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6] 이러한 자산 축적 방법은 연령대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연령이 높은 부자일수록 부동산 투자 영향이 컸던 반면 40대 이하의 젊은 부자들은 부동산 투자보다는 사업체 운영을 통해 자산을 축적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7] 이는 국내 부동산 개발이 활발했던 70~80년대 경제활동 세대의 경우 부동산 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이 활발했으며, 90년대 이후 경제활동 세대는 산업구조 다양화와 경제 규모 확대에 따라 사업체 운영을 통한 부의 축적이 활발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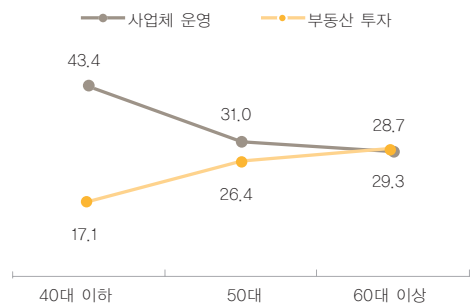
[그림 6] 현재자산의 축적 방법

(단위: %)



[그림 7] 연령별 현재자산 축적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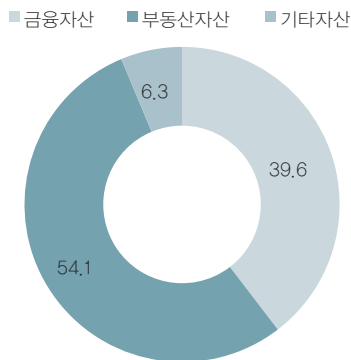
(단위: %, 1순위 기준)



다음으로, 한국 부자들의 현재 총자산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자. 개인별 총자산(중앙값 기준, 인당 약 44억원)의 구성은 평균적으로⁷⁾ 부동산자산(주택, 건물, 상가, 토지 등) 54.1%, 금융자산 39.6%, 기타자산(예술품, 회원권 등) 6.3%인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비중이 다소 높은 자산구조를 보이고 있다.[그림8] 하지만 지난해 조사에서 부동산자산 비중이 55.4%, 금융자산 비중이 38.0%였던 것에 비하면 부동산자산 비중이 소폭 하락하고 금융자산 비중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부동산자산 비중이 감소하고 금융자산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는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가 본격화된 2012년 이후 두드러진 것으로 파악된다.[그림9] 부동산자산 비중의 하락세는 인위적인 투자 조정보다는 보유 부동산의 가치 하락이 주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2장의 '자산 투자 행태와 전망'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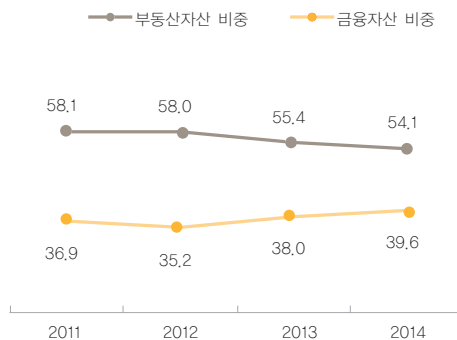
[그림 8] 한국 부자의 총자산 구성비

(단위: %)



[그림 9] 자산 구성비의 변화 추세

(단위: %)



이러한 자산 구성비는 총자산의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며, 총자산의 규모가 클수록 부동산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금융자산 비중이 감소하는 형태를 보인다. 이러한 구조는 총자산의 규모가 커지더라도 일정 금액까지만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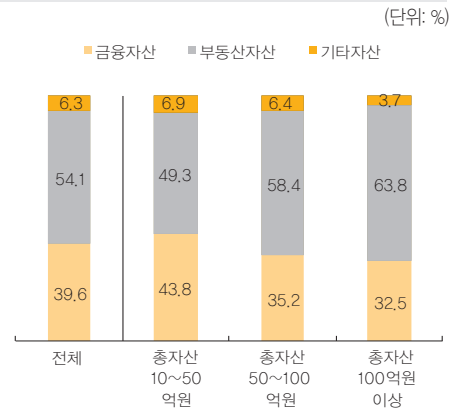
7) 총자산 중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비중의 평균은 각 개인의 부문별 자산 비중을 산출 한 후 이에 대한 평균을 의미

한국 부자의 총자산은 평균적으로 부동산자산 54.1%, 금융자산 39.6%, 기타자산 6.3%로 구성되어 부동산 비중이 다소 높은 구조를 보이고 있으나 부동산자산 비중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다.

자산 형태로 운용하고 나머지는 부동산 중심으로 투자하는 자산관리 행태와 함께, 전반적으로 금융 투자 보다는 부동산 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10] 총자산 규모가 비슷한 경우, 연령에 따른 자산 구성비 차이는 크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부자가 보유 중인 자산의 세부 구조와 포트폴리오 변화, 투자행태 등에 대해서는 2장의 ‘자산 투자 행태와 전망’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림 10] 총자산 규모별 자산구조



부자에 대한 인식과 목표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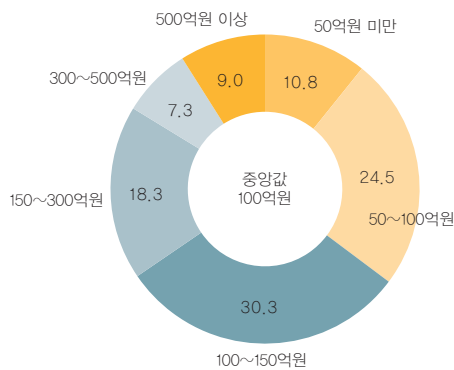
03

일반인 대다수는 금융자산이 10억원 이상인 사람을 당연히 부자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 이러한 자산을 보유한 한국 부자들은 어느 정도 자산을 보유해야 부자라고 인식하고 있을까? 조사 응답자의 약 65%는 최소 100억원 이상의 자산을 가져야 부자라고 생각하며, 300억원 이상을 가져야 한다는 응답도 16.3%에 달했다. 전체 응답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볼 때, 한국 부자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총자산 1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11] 실제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78%의 응답자가 본인은 부자가 아니라고 응답한 것을 보면 한국 부자들의 부에 대한 기대 수준이 그만큼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 부자들은 앞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어느 정도의 자산을 축적하고자 하는지 살펴보자. 한국 부자의 현재자산 중앙값이 44억원인 반면 향후의 목표자산 중앙값은 70억원으로 나타나 현재의 두 배 가까운 목표를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 50~100억원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40.3%로 가장 많았으며, 목표자산 규모가 50억원 미만인 경우는 20.3%에 불과했다. [그림12] 이러한 목표 자산 수준은 현재의 자산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현재자산이 많을수록 향후의 목표자산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는 자신의 현재자산 수준을 기준으로 미래의 목표를 세운다는 상식에 비추어볼 때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림13]

[그림 11] 부자이기 위한 최소 자산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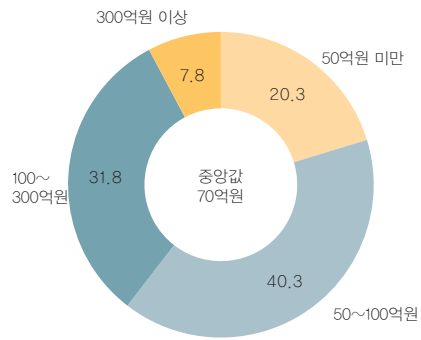


한국 부자의 65%는 최소 100억원 이상의 자산을 가져야 부자라고 생각하며, 조사 응답자의 78%는 본인이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국 부자는 현재 자산의 두 배 정도를 목표자산으로 생각하며, 목표자산 축적을 위한 방법으로 부동산 투자와 사업체 운영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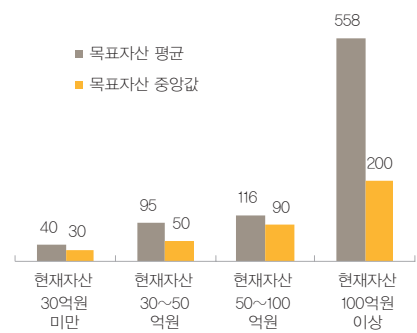
[그림 12] 향후 목표자산 규모

(단위: %)



[그림 13] 현재자산 수준별 목표자산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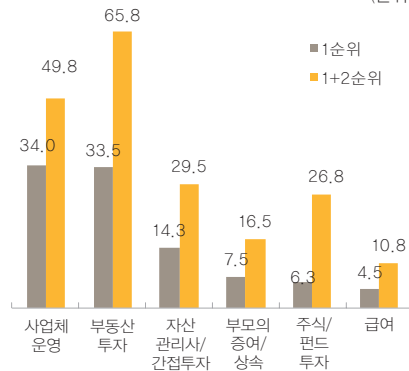
(단위: 억원)



이와 같은 목표자산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업체 운영'과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앞에서 살펴본 현재자산 축적 방법과 유사한 결과로서 지금까지의 자산축적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에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 자산 축적을 위한 방법 1+2순위 기준으로 3명 중 2명은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고 있으며, 전문 자산관리사를 활용하거나 주식/펀드 등에 직접 투자하는 것도 보완적 방법으로 고려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14]

[그림 14] 향후 목표자산 축적 방법

(단위: %)



Part

II

자산 투자 행태와 전망

한국 부자의 부동산자산 중 평균 54.9%는 투자용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으며, 금융자산 중 47.9%를 차지하는 현금과 예적금 비중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총자산 규모가 큰 부자일수록 부동산자산 중 투자용 부동산, 금융자산 중 리스크성 금융자산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 1년간 서울과 수도권 부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자산이 증가한 경우보다 감소한 경우가 많았으나, 향후 유망한 투자처에 대한 인식과 자산관리 관심 분야에서 여전히 국내 부동산이 1순위로 꼽히고 있다. 다만,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눈에 띄게 감소함에 따라 국내외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 부자들은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력이 높고 자신의 투자 실력에 대한 믿음이 강한 편이지만, 경제와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됨에 따라 자신감이 많이 약해지고 전문가 도움에 대한 니즈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 자산 유형별 포트폴리오 현황
2. 자산 포트폴리오의 변화와 전망
3. 자산관리 관심사와 투자 의향
4. 금융기관 이용 행태와 인식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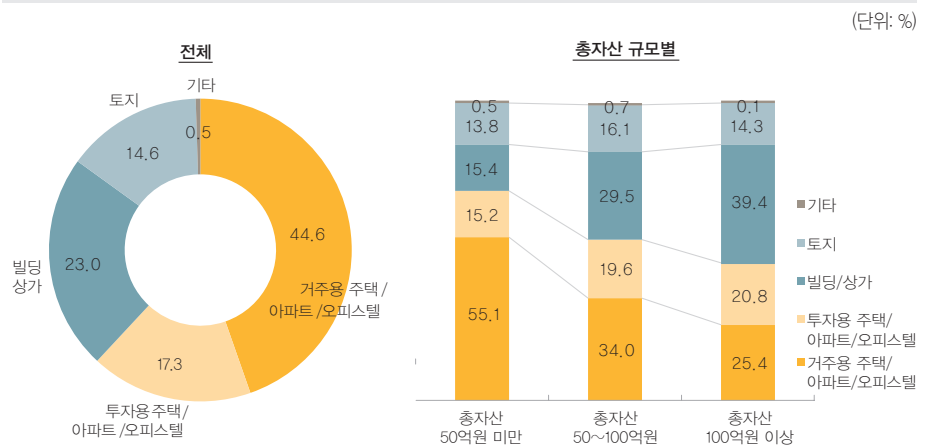
자산 유형별 포트폴리오 현황

한국 부자의 부동산 자산 중 55%는 투자용 부동산이며, 상가에 대한 투자 선호도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 부자의 총자산은 평균적으로 부동산자산 54.1%, 금융자산 39.6%, 기타자산 6.3%로 구성되어 상대적으로 부동산자산 비중이 높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자산 부문별로 세부적인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한국 부자의 총자산 중 비중이 가장 높은 부동산자산의 구성을 살펴보면, '거주용 주택/아파트/오피스텔'이 44.6%였으며, 거주용 외 '빌딩/상가' (23.0%), '투자용 주택/아파트/오피스텔'(17.3%), '토지'(14.6%) 등 투자용 부동산의 비중이 54.9%를 차지하고 있다. 자산 규모가 큰 부자일수록 전체 부동산자산 중 투자용 부동산 비중도 높게 나타나는데, 총자산 50억원 미만의 경우 44.4%, 50~100억원의 경우 65.3%, 100억원 이상의 경우 74.6%가 투자용 부동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산이 많을수록 '빌딩/상가'에 대한 투자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투자용 주택/아파트/오피스텔' 비중은 소폭 상승하는 특성을 보여, 상대적으로 '빌딩/상가'에 대한 투자 선호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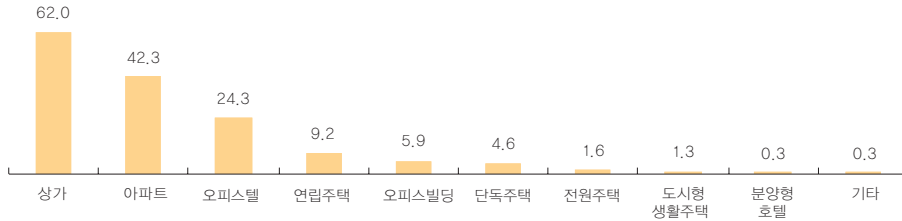
[그림 15] 부동산자산 포트폴리오 및 총자산 규모별 비교



토지 외 투자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부자의 경우, 가장 대표적인 투자 대상 부동산은 '상가'(62.0%)인 것으로 나타나며, 다음으로 '아파트' (42.3%), '오피스텔'(24.3%) 순으로 높은 투자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16] 서울과 수도권 부자는 아파트와 오피스텔(각 47.4%, 27.6%) 투자율이 지방 부자(각 26.0%, 13.7%)에 비해 높은 수준인 반면, 지방 부자는 특히 상가(71.2%)

[그림 16] 투자용 부동산 보유자의 투자 부동산 종류

(단위: %, 복수응답)



에 대한 투자율이 수도권 부자(59.1%)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현재 보유하고 있는 투자용 부동산의 연평균 수익률은 5.6%로 나타나 지난해 조사 결과 6.3%에 비해 하락했으며, 향후 기대 수익률도 평균 8.1%로 지난해 조사 결과 9.1%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용 부동산의 수익률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강남3구 부자의 수익률이 6.3%로 가장 높고, 이어서 기타 서울지역 6.0%, 경기 및 인천 5.6%, 지방 4.7%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익률 차이에 따라 향후의 기대 수익률도 서울과 수도권 부자가 8.4%로 지방 부자 7.0%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투자용 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등 포함)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전세보다 월세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현재 전세 형태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향후 월세로의 전환 의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2] 최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91%의 부자가 들어봤거나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높은 인지도를 보인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월세나 전세 보증금을 올리겠다’는 비율(42.8%)이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비율(38.6%)에 비해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투자용 주택에 대한 전세·월세 활용 현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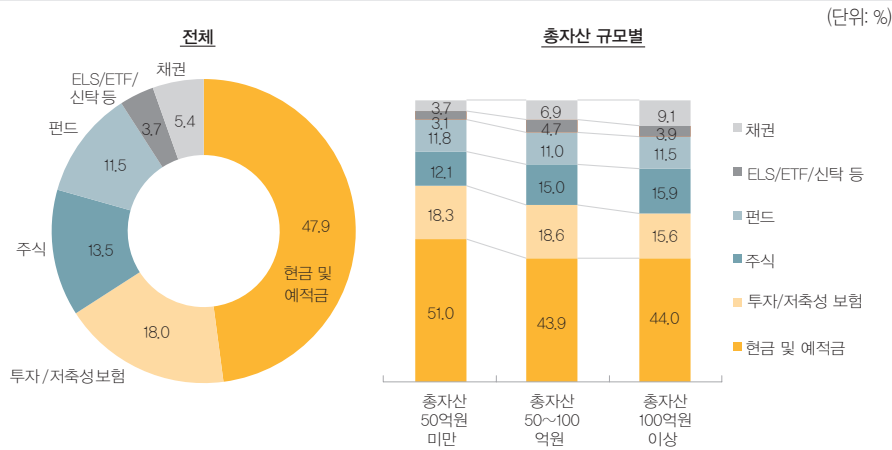
현재의 임대 형태			전세 임대자의 월세 전환 의향		
전세	월세	전월세 모두	없음	보통	있음
17.9	33.7	48.5	6.8	17.3	75.9

부동산 투자와 관련하여, 직접 소유하고 임대하는 '직접투자' 외에 '간접투자'에 대한 한국 부자의 행태와 인식은 어떠한지 살펴보자. 부동산에 대한 직접투자 외에 리츠(REITs)나 부동산펀드와 같은 간접투자를 해본 비율은 6.8%로 낮게 나타났으며, 간접투자 비경험자의 절반 이상(51.5%)은 향후에도 투자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부동산 간접투자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부동산 간접투자 경험자의 경우에도 부동산 '직접투자'의 대안으로 선택(15%)하기보다는 다른 간접투자 상품의 대안으로 '부동산'을 선택(85%)한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는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의 수익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투자 의향이 있는 경우 부동산펀드(32%)에 비해 리츠(41%)에 대한 투자 의향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이러한 투자의향을 보이는 비율은 26.8%로 4명 중 1명 수준에 그쳤다.

다음으로 한국 부자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세부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자. 한국 부자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중에는 현금 및 예적금이 47.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투자/저축성 보험(18.0%), 주식(13.5%), 펀드(11.5%) 순으로 투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도 총자산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총자산이 많을수록 예적금 비중이 감소하는 대신 주식과 채권에 대한 직접투자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예적금과 같은 안전 금융자산에 일정 금액을 투자한 후, 나머지 여유 자금은 투자수익을 높일 수 있는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행태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17] 지역적으로는 서울 및 수도권의 부자들이 지방 부자에 비해 주식, 펀드, ELS/ETF/신탁 등의 리스크성 금융자산에 더 높은 투자 비중을 두는 반면, 지방 부자들은 예적금 및 투자/저축성 보험과 같은 안전자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 부자의 금융자산 중 47.9%는 현금 및 예적금이 차지하고 있으며, 총자산이 많을수록 리스크성 금융자산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17]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및 총자산 규모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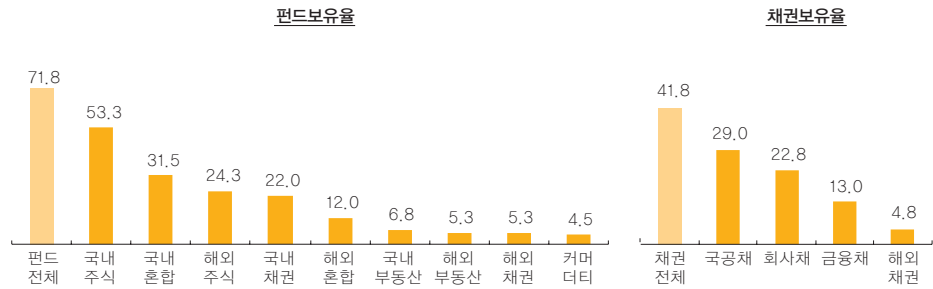
이와 같은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를 지난해⁸⁾와 비교해 보면, 현금 및 예적금, 투자/저축성 보험과 같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금융상품 비중은 증가한 반면, 주식, 펀드, ELS/ETF/신탁 등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금융상품 비중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2012년 이후 2년 연속 지속되고 있으며 총자산 규모가 큰 부자일수록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된다. 글로벌 경기의 변동성과 함께 국내 경기 회복의 지연,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 횡보중인 주식시장 등의 영향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보다 향후 투자처 모색을 위한 대기성 자금 운용이나 장기 저축성 보험을 활용한 절세형 투자 등에 초점을 둔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 부자들의 71.8%가 펀드를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주식형 펀드보유율이 53.3%로 가장 높고, 이어서 국내혼합형 31.5%, 해외주식형 24.3%, 국내채권형 22.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채권형보다 주식형, 해외형보다 국내형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반인의 펀드 투자행태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채권 투자의 경우 주로 국공채, 회사채, 금융채 등 국내채권을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한 때 브라질 국채 등 해외채권의 인기가 높았으나 현재 해외채권을 보유한 비율은 5% 미만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18]

8) 2013년 금융자산의 비중: 현금 및 예적금 46.3%, 주식 15.6%, 투자/저축성 보험 17.5%, 펀드 12.2%, ELS/ETF/신탁 등 4.9%, 채권 3.4%('2013 한국 부자 보고서', KB경영연구소)

[그림 18] 펀드 및 채권 유형별 보유율

(단위: %)



자산 포트폴리오의 변화와 전망

02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 비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많은 부분 완화되었으나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출구전략,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정치적 이슈의 경제적 파급, 일본 양적완화와 엔화 약세 등이 이어지며 글로벌 자산관리 시장에도 끊임없는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의 부자들 또한 이러한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의 변동성뿐만 아니라 국내 경기회복 지연, 부동산시장 침체 장기화, 저금리 지속과 주식시장 위축에 따라 자산관리에 많은 변화와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부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최근 어떠한 변화가 있었으며,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를 예상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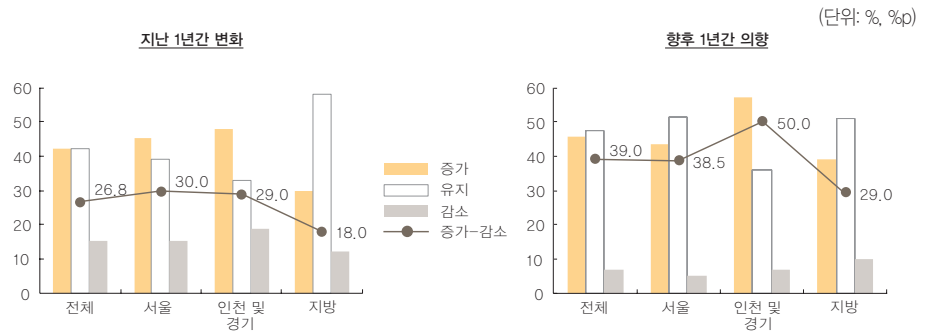
먼저 전체적인 금융자산의 변화를 살펴보면, 지난 1년간 금융자산이 증가한 부자의 비율(42.3%)이 감소한 부자의 비율(15.5%)보다 26.8%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겠다는 의향자(45.8%)도 감소시키겠다는 의향자(6.8%)에 비해 39.0%p 높아, 금융 투자에 대한 긍정적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조사⁹⁾에 비해 금융자산 규모를 유지(42.3%)했거나 앞으로도 유지(47.5%)하겠다는 비율이 크게 높아져 금융투자에 대한 기대나 확신은 다소 위축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자산 변화의 경험과 의향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 1년간 변화와 향후 의향 모두 지방 부자에 비해 서울 및 수도권 부자들이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19] 이러한 지역적 차이는 지난해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데,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성향의 차이(지방 부자들은 상대적으로 예금·보험 등의 안정적 금융자산에 많이 투자)와 지난 1년간의 투자행태 영향으로 해석된다. 한편, 지난 1년간 금융자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이유는 본인이 의도적으로 투자금액을 늘리거나(39.1%) 줄인(12.9%) 경우보다는 기존투자의 수익률 차이에 기인하는 비율(증가자의 60.9%, 감소자의 87.1%)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1년간
금융자산이
감소한 부자보다
증가한 부자가
 많았으며,
앞으로도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겠다는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9) 2013년 금융자산 유지 비율: 지난 1년간 유지 31.8%, 향후 1년 유지 의향 28.7% ('2013 한국 富人 보고서', KB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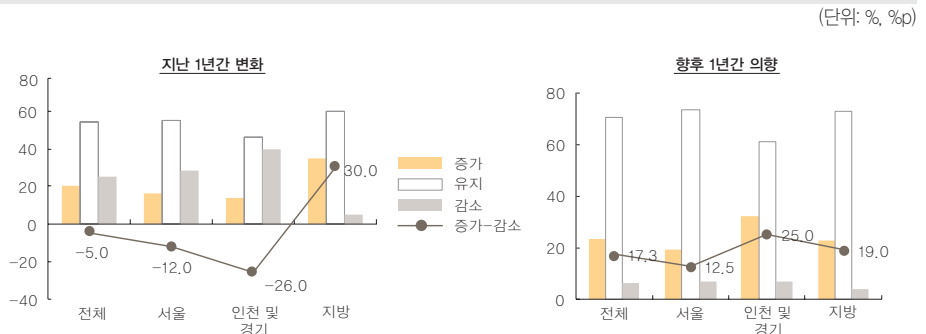
향후 부동산 투자
의향에서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당분간
부동산 시장에서의
투자 관망세는 지속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림 19] 금융자산의 변화 및 향후 의향



부동산자산의 변화를 보면, 서울과 수도권의 부자들은 지난 1년간 부동산자산이 증가한 경우보다 감소한 경우가 많은 반면, 지방의 부자들은 부동산자산이 증가한 경우가 30%p(증가 35% vs. 감소 5%) 높게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조사에서는 부동산자산이 증가한 비율과 감소한 비율이 유사한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감소한 비율이 12%p 높았으며, 인천 및 경기 지역은 지난해에 비해 격차가 소폭 축소(지난해 31.6%p → 올해 26.0%p)되었다. 향후 부동산 투자 의향에서도 증가나 감소 의향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당분간 부동산 시장의 투자 관망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20] 한편, 지난 1년간 부동산자산이 감소한 부자는 보유 부동산의 처분이나 증여를 통해 의도적으로 줄인 경우(5.8%)보다 보유 부동산 가치의 하락에 따른 손실(94.2%)이 많았으며, 부동산자산이 증가한 부자의 경우에는 32.1%가 의도적으로 부동산을 추가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0] 부동산자산의 변화 및 향후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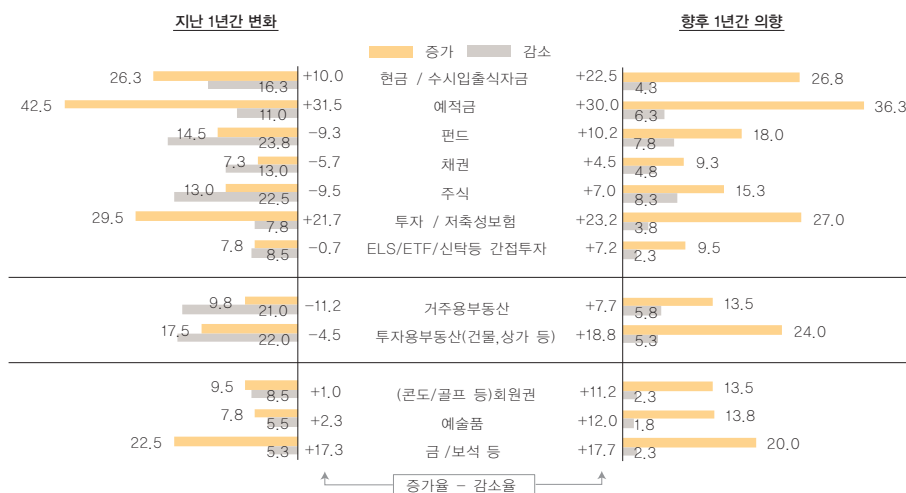


앞에서 살펴본 포트폴리오 변화와 전망에 대해 금융 및 부동산, 기타자산을 세부적으로 구분해보면 예적금 투자 증가가 가장 눈에 띈다. 지난 1년간 예적금이 증가한 부자의 비율은 감소한 부자의 비율보다 31.5%p 높았으며, 앞으로의 포트폴리오 운용에서도 예적금을 증가시키겠다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예적금의 이자율이 역사상 최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투자 의향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다른 투자처가 마땅치 않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현금성 자산(현금, MMF, CMA 등)에 대한 증가 의향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수익성 증대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당분간 안전성 위주의 금융투자를 기반으로 새로운 투자기회를 모색하고자 하는 의향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자산 중 투자/저축성 보험의 높은 선호도는 지난 1년간의 증가와 향후 투자 의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절세를 목적으로 하는 장기저축보험이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부동산 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건물/상가 등 투자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의향은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지난해 조사(증가율-감소율=32.2%p)에 비해서는 크게 위축되었고, 금/보석 등의 실물 투자는 지난해에 이어 투자 의향이 여전히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

한국 부자들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함에 따라
당분간 안전성 위주의
금융투자를 기반으로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색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21] 세부 포트폴리오 변화 및 향후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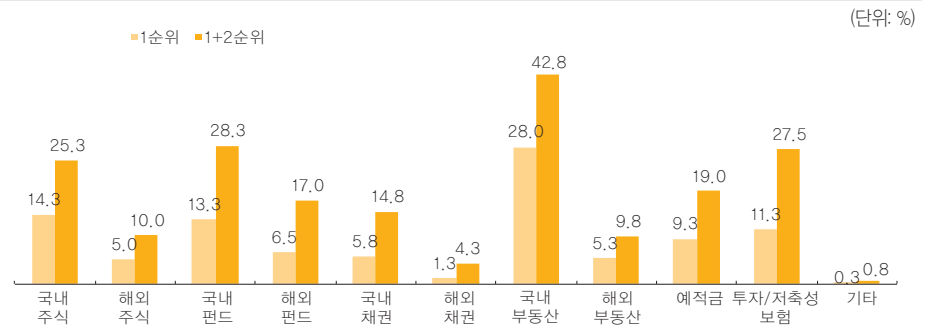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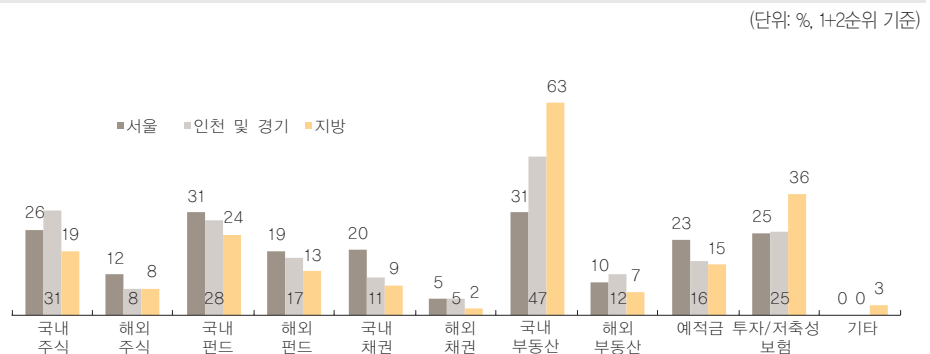
향후
유망한 투자처로
'국내 부동산'을
꼽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전년 대비 하락,
부동산 투자에 대한
수익률 전망이 낮아
졌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부자들은 향후 어느 분야를 가장 유망한 투자처로 인식하고 있을까? 가장 수익률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 대상으로 조사 응답자의 28.0%가 '국내 부동산'을 꼽아 '국내 주식'(14.3%)에 비해 긍정적인 전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 조사에 비해 국내 부동산을 꼽은 비율이 소폭(4.5%p) 하락했고 해외 부동산을 꼽은 비율도 11.8%에서 5.3%로 하락하여 부동산 투자에 대한 수익률 전망이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1+2순위 기준으로는 42.8%의 부자들이 국내 부동산을 가장 유망한 투자처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해외 투자보다는 국내 투자에 대한 수익률 전망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22] 다만, 이와 같은 투자 전망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서울 및 수도권 부자들은 주식/펀드 및 해외 투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 전망을 가진 반면 지방 부자들은 국내 부동산에 치우친 기대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림 23] 이는 현재의 자산 구조나 투자 성향, 상품 접근성 등에 따라 부자들 간에도 시장 전망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22] 수익률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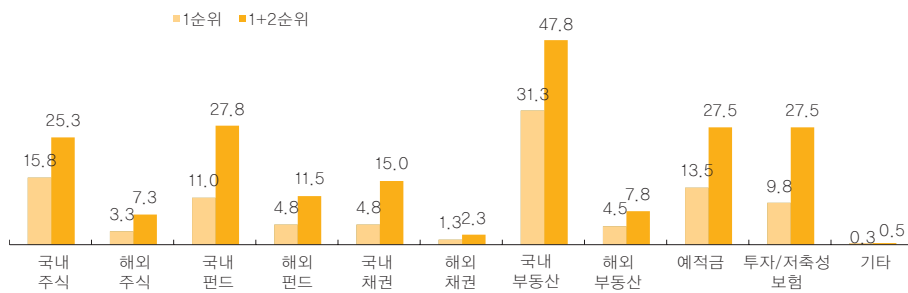
[그림 23] 수익률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 대상 - 지역별 비교



한편, 투자 대상에 대한 수익률 전망과 실제 투자 선호도 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수익률과 손실위험 등을 함께 고려했을 때 해외 투자에 대한 선호도는 수익률 전망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이는 반면 국내 부동산, 예적금 등에 대한 투자 선호도는 수익률 전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4] 이는 기대 수익률이 다소 낮더라도 안정적이거나 평소 잘 알고 있는 투자 대상을 선호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24] 가장 선호하는 투자 대상

(단위: %)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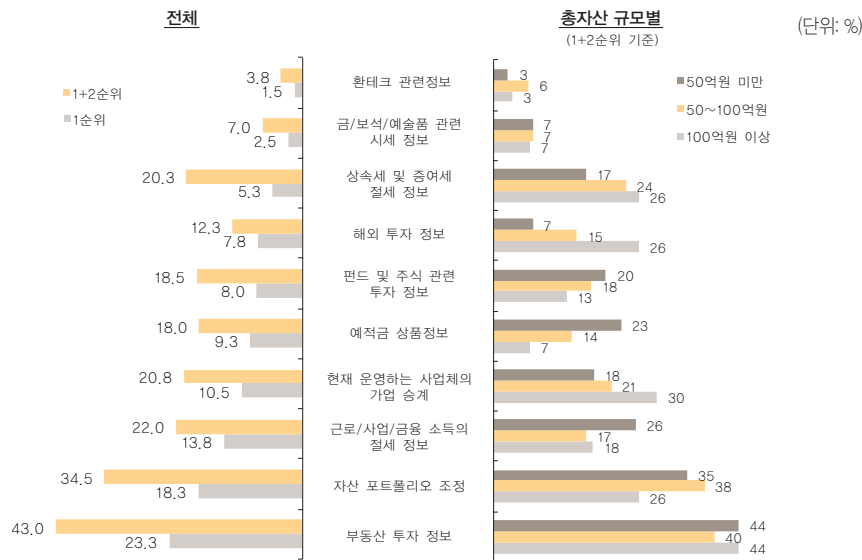
자산관리 관심사와 투자 의향

앞에서 한국 부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세부 구성과 앞으로의 투자 전망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한국 부자들이 자산관리를 위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무엇이고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무엇을 주로 고려하는지, 국내 부동산 경기와 해외투자 등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한국 부자들이 자산관리 측면에서 어떠한 정보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한국 부자의 자산관리 최대 관심사(1순위)는 ‘부동산 투자정보’로 23.3%의 부자가 이에 대해 가장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18.3%), ‘근로/사업/금융 소득의 절세정보’(13.8%) 등을 꼽았다. 이는 한국 부자의 높은 부동산자산 비중과 현재까지의 자산축적 과정, 과세 제도의 변화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1순위 관심사로 ‘부동산 투자정보’를 꼽은 비율이 32.5%였던 것에 비해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크게 하락한 반면,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져 저금리와 부동산 침체 상황에서 전체 자산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고민이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정보’에 대한 관심도는 1순위 기준으로 낮은 수준이나 1+2순위 기준으로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현재 자산의 투자뿐만 아니라 부의 세대간 이전에 높은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산 규모에 따라 관심사에도 차이를 보이는데, 펀드/주식/예적금 등의 금융투자 정보는 자산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부자일수록 관심이 높은 반면, 사업체의 가업승계나 상속세/증여세 절세정보, 해외투자 정보 등은 자산이 많은 부자일수록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25] 특히, 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있어서 4명 중 1명은 ‘절세와 세금혜택’을 수익성이나 안전성보다 중요하게 고려할 정도로 절세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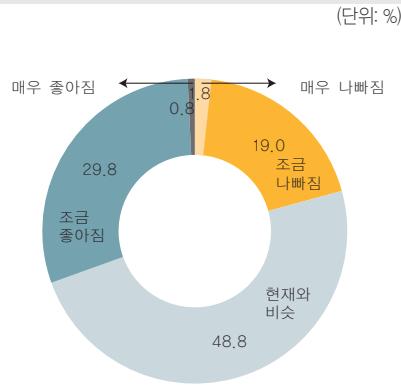
한국 부자의 ‘부동산 투자정보’에 대한 관심은 전년 대비 하락한 반면,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 및 ‘절세 정보’에 대한 관심은 크게 높아졌다.

[그림 25] 자산관리 관심사



과거에 비해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부동산 투자정보에 관심이 많은 한국의 부자들은 국내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 향후 1년 국내 부동산 시장의 경기 전망에 대해 조사 응답자의 48.8%가 '현재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조금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는 비율이 29.8%로 '조금 나빠지거나', '매우 나빠질 것'으로 전망하는 비율 20.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그림26] 전체적으로 크게 나빠지거나 좋아지기 보다는 약간의 낙관적 전망이 우세하지만, 지난해 조사¹⁰⁾에 비해 긍정적 전망이 감소하고 부정적 전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

[그림 26] 향후 국내 부동산 경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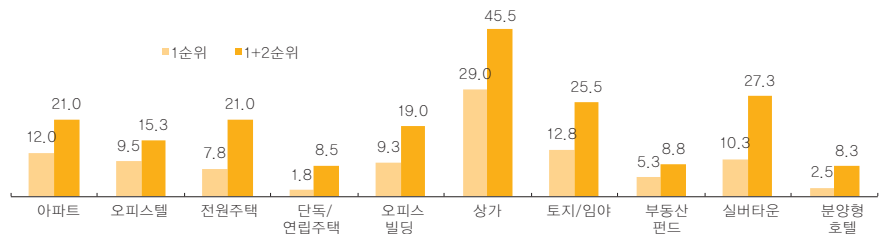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해 비관적 전망이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부동산 중에서는 상가, 토지, 아파트, 실버타운 등을 유망한 투자처로 인식하고 있다.

10) 2013 국내 부동산 시장 전망: 매우 나빠짐 0.7%, 조금 나빠짐 11.8%, 현재와 비슷 45.0%, 조금 좋아짐 42.3%, 매우 좋아짐 0.2% ('2013 한국 富者 보고서', KB경영연구소)

났다. 향후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가장 유망할 것으로 보는 투자 대상은 상가, 토지, 아파트 순으로 높게(1순위 기준) 나타나며, 고령화에 따라 실버타운에 대한 투자 전망도 높은 수준이었다. 오피스텔 투자 전망은 지난해 초까지 아파트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으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과잉과 임대료 하락이 이어지며 투자 전망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림27]

[그림 27] 향후 국내 부동산 투자 시 유망한 투자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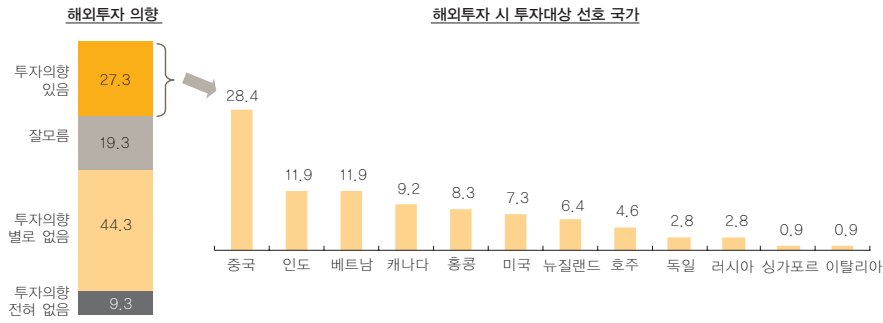


자산이 많은 부자일수록 해외투자 의향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며 주로 아시아 신흥개발국에 대한 투자 선호도가 여전히 높게 나타난다.

최근 몇 년간 국내 주식시장이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저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해외투자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산이 많은 부자일수록 높게 나타나는데, 한국 부자들이 해외투자에 대해 어떤 의향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한국 부자 중 해외 직접투자 의향을 가진 비율은 27.3%로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총 자산 100억원 이상인 부자의 경우 49.2%가 해외 직접투자 의향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지방 부자보다 서울 및 수도권 부자의 해외투자 의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투자 의향이 있는 경우 투자 대상 국가로는 중국을 중심으로 인도, 베트남과 같은 아시아 신흥개발국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28] 해외 직접투자 방법에서는 부동산 37.6%, 주식 24.8%, 채권 20.2%, 사업체 진출 17.4% 순으로 조사되어 지난해보다 부동산 선호도(2013년 56.7%)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8] 해외 직접투자 의향 및 선호 국가

(단위: %)



한편, 예적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수익성이 최저 수준까지 하락한 상황에서도 한국의 부자들은 여전히 '수익'보다 '안전'에 투자 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의 자산관리 및 투자 방식에 있어서 '위험을 감수하고 기대수익을 높이기'(12.5%)보다는 '현재의 위험도와 기대수익을 유지'(58.8%)하거나 '현재보다 기대수익이 낮더라도 위험을 더 줄이겠다'(28.8%)는 비율이 높아 수익 추구보다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두는 투자행태를 알 수 있다. 다만, 지난해에 비해 '위험을 감수하고 수익을 높이겠다'는 비율(2013년 6.4%)이 증가하고 '위험을 줄이겠다'는 비율(2013년 37.3%)은 감소하여, 낮아진 투자 수익률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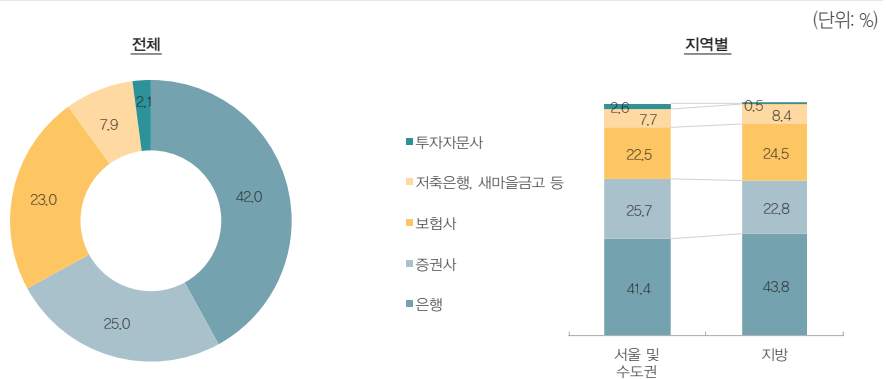
금융기관 이용 행태와 인식

한국의 부자들은 평균 8개의 금융기관과 거래할 정도로 다양한 형태의 금융 니즈를 보이며, 자산 규모가 클수록 은행 거래 선호도가 높은 경향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자산이 많을수록 금융거래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투자 니즈가 다양해짐에 따라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종류와 개수가 많아진다. 실제 한국 부자의 거래 금융기관 개수는 평균 8.1개(은행 2.9개, 증권사 1.6개, 보험사 2.8개, 우체국/저축은행/새마을금고 0.7개, 투자자문사 0.1개)로 높은 수준이며, 거래하는 은행의 개수도 총자산이 많을수록 증가하는 경향¹¹⁾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부자의 금융자산은 금융기관 종류에 따라 어떻게 분산 예치되어 운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평균적으로 한국 부자는 금융자산의 42%를 은행에, 25%를 증권사에, 23%를 보험사에 예치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해와 비교¹²⁾해보면, 은행과 보험사 예치 비중이 증가한 대신 저축은행/새마을금고 등의 예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예치 비중을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서울과 수도권 부자는 지방 부자에 비해 은행 및 보험사 예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신 증권사나 투자자문사 예치 비중이 높은 형태를 보인다. [그림 29]

[그림 29] 금융자산의 기관별 예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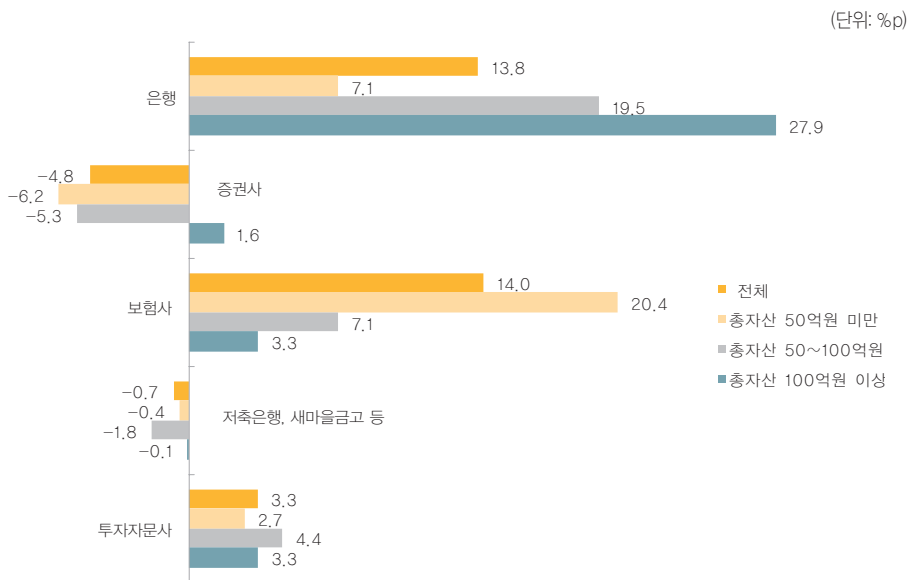


각 금융기관에 대한 향후 거래 의향을 비교해 보면, 은행에 대한 거래 증가 의향자(30.5%)가 감소 의향자(16.8%)보다 13.8%p 높게 나타나 은행에 대한

11) 평균 거래은행 개수: 총자산 50억원 미만 2.8개, 총자산 50~100억원 3.0개, 총자산 100억원 이상 3.2개
 12) 2013년 금융자산 예치 비중: 은행 40.0%, 증권사 24.9%, 보험사 20.6%, 저축은행/새마을금고 등 12.0%, 투자자문사 및 기타 2.5% ('2013 한국 富者 보고서', KB경영연구소)

거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은행 거래 선호는 지난해에 비해 다소 하락했으나 총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산이 많은 부자일수록 은행 거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험사에 대한 거래 증가 의향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자산이 적은 부자일수록 선호도가 높은 점은 은행 선호도와 상반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은행과 보험사 거래 의향을 합산할 경우 총자산 규모에 관계 없이 유사한 비율을 보이고 있어, 절세와 관련된 니즈 외에는 안전성 위주의 투자 선호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증권사 거래는 전체적으로는 비중을 줄이겠다는 비율이 높으나 자산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부자층에서 거래를 늘리겠다는 의향이 미약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모습은 지난해에도 일부 나타나 초고자산가를 중심으로 위험자산 투자 의향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증권사 거래 의향은 지난해보다 부정적 경향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저축은행과 새마을 금고 등은 부실을 우려하는 인식이 해소되지 않고 예금금리의 강점이 크게 약화됨에 따라 투자 선호도가 낮은 수준이며, 투자자문사에 대해서는 긍정적 거래 의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30]

[그림 30] 금융기관별 향후 예치율 변화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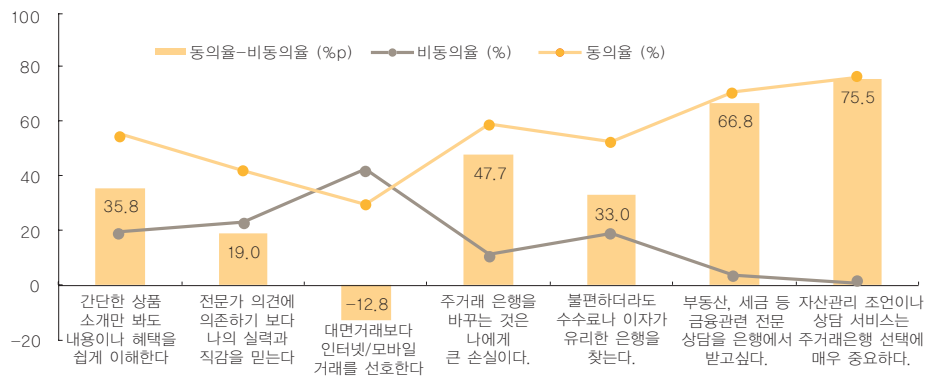


주: 그림의 수치는 해당 금융기관의 거래 증가의향자 비율에서 감소의향자 비율을 뺀 값임

한국 부자들은 자신의 투자 실력에 대한 믿음이 강한 편이나, 시장의 변동성 지속에 따라 과거에 비해 투자 자신감이 많이 약해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금융거래와 투자관련 인식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한국 부자들은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력이 높고, 자신의 투자 실력에 대한 믿음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의견에 의존하기보다 나의 실력과 직감을 믿는다’는 내용에 대해 42.0%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23.0%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19.0%p의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가 지난해(12.9%)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은 경제 상황과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됨에 따라 과거에 비해 투자 자신감이 많이 약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동산, 세금 등의 전문 상담이나 자산관리 조언/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매우 크고 지난해에 비해 높아진 점도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외에, 주거 은행을 가급적 변경하지 않고 지속 거래하려는 의향과 인터넷/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융거래보다 대면채널 거래를 선호하는 점은 지난해와 큰 변화가 없었다. [그림31]

[그림 31] 금융기관 거래 및 투자관련 인식



Part

III

금융에 대한 인식과 미래 준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 및 국내 경기의 회복 전망이 확대됨에 따라, 적정 수준의 위험을 부담하더라도 수익률을 개선하고자 하는 투자성향이 지난해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지식 수준에 따라 투자 행태를 비교해 보면, 금융지식 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다양한 투자상품을 활용하고 주식 등 위험자산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노후준비 방법에서 부동산의 활용 비중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반면, 예적금, 사적연금 등 다른 투자 대안들의 활용 비중이 증가하여 '노후 자산 마련의 1순위 대책은 부동산 투자'라는 인식이 점차 희석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상속 및 증여와 관련해서는 '배우자'를 상속/증여 대상으로 고려하는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하여, 자산 형성 시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경향이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2억 초과 상속형 즉시연금의 비과세 종료 등으로 인해 '보험'을 활용한 상속 의향은 크게 감소하였고, '부동산신탁', '재산신탁' 등의 활용 의향도 다른 수단 대비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한편, 2012년 신탁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유언대용신탁'에 대해서는 자산이 많은 부자를 중심으로 가입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1. 투자성향과 금융지식
2. 은퇴 및 노후 준비
3. 상속·증여에 대한 인식과 계획

01

투자성향과 금융지식

글로벌 및
국내 경기의 회복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저금리 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일정 수준의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투자수익을
실현하려는
'적극투자형' 성향이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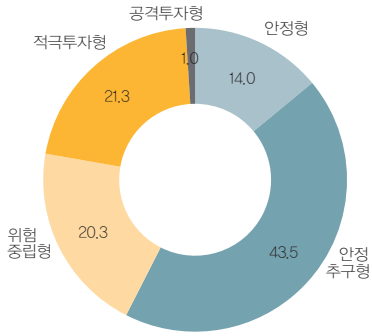
‘오마하의 현인’이라 불리는 투자 전문가 워렌 버핏(Warren Buffett)은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자기 능력의 한계를 이해하고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모든 투자 및 자산관리의 출발점이 자신의 투자성향 파악에서 시작하는 이유도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한국 부자의 투자성향에 있어 가장 큰 변화는 원금 손실의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안정추구형 성향이 43.5%로 전년 대비 9.4%p 하락한 반면,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실현하려는 적극투자형 성향은 21.3%로 전년 대비 13.8%p나 증가한 것이었다. [그림32] 이러한 적극적 투자성향의 증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는데, 연령이 높아질수록 안정적 투자성향(안정형+안정추구형)이 증가하는 경향은 과거와 유사하나 적극투자형 성향의 비중이 전 연령대에서 20%를 상회했다. [그림33] 또한 금융자산 30억원 이상을 보유한 부자의 적극적 투자성향(적극투자형+공격투자형) 비중은 37.5%로 30억원 미만 부자의 17.9%를 크게 상회했으며, 전년과 비교해서는 23.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조사의 경우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 하에서도 글로벌 경기침체의 지속, 북핵문제 등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로 인해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됨에 따라 안정적 투자성향이 증가했던 반면, 이번에는 글로벌 및 국내 경기의 개선 전망과 함께 저금리 상황은 지속되었기 때문에 적극적 투자성향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자산관리 및 투자 시 위험을 다소 감수하더라도 기대수익률을 높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년 대비 6.1%p 증가한 점, 위험 및 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장 선호하는 투자자산으로 국내외 주식의 응답 비중(1순위)이 19.0%로 전년 대비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 수준의 위험을 부담하더라도 투자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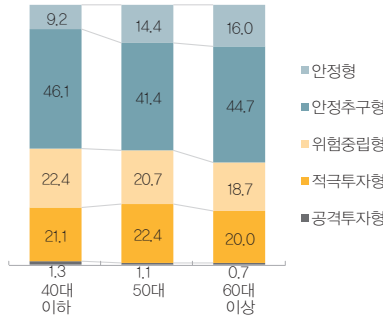
[그림 32] 투자성향

(단위: %)



[그림 33] 연령대별 투자성향

(단위: %)



금융교육에 관한 글로벌 협력기구인 OECD INFE¹³⁾가 “금융지식 없이 현대를 살아가는 것은 나침반이나 위성항법장치(GPS) 없이 항해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일”이라고 충고한 것처럼, 금융지식 수준은 개인 및 국가 경제의 성장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하지만 관련 조사¹⁴⁾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의 금융지식 수준(Financial Literacy Index)은 아시아/태평양 16개국 평균을 하회하는 최하위권으로 말레이시아/태국/필리핀 등 국민소득이 낮은 국가들보다도 열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지식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 부자는 본인의 금융상품 및 투자관련 지식수준에 대해 전년 대비 7.0%p 증가한 57.0%가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 금융자산 30억원 미만의 부자 중 53.5%가 자신의 금융지식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반면 금융자산 30억원 이상 부자 중에는 69.3%가 자신의 금융지식 수준이 높다고 응답하여, 보유 금융자산 규모가 클수록 금융지식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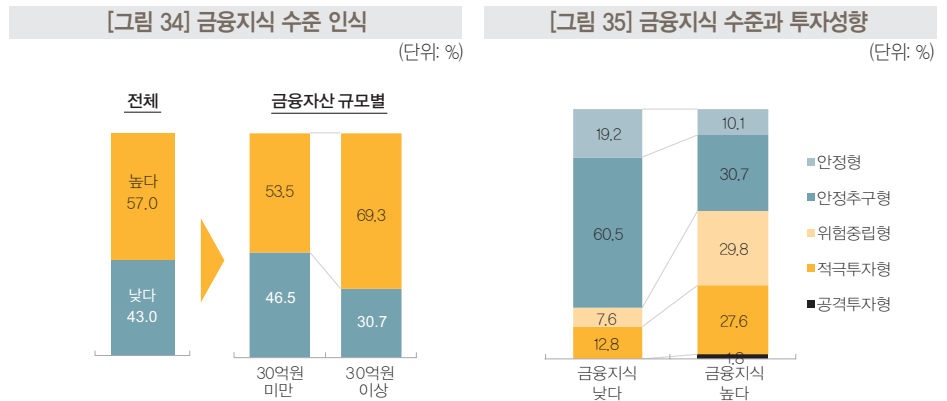
또한 금융지식 수준에 대한 인식은 투자성향과도 높은 관련성을 가지는데, 본인의 금융지식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부자의 79.7%가 자신이 안정/안정추구형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금융지식이 높다고 인식한 부자

본인의 금융지식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한국 부자의 비중이 증가하였고, 금융지식 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다양한 투자상품을 활용한 적극적 투자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International Network on Financial Education

14) 'Index of Financial Literacy Report' (Mastercard, 2013)

의 경우 안정/안정추구형 투자성향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0.7%로 낮았으며 적극/공격투자형 투자성향의 비율이 29.4%로 높게 나타났다.[그림35]



관련 연구¹⁵⁾에 따르면, 금융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다양한 투자상품을 활용하는 경향을 보이며, 주식 등 위험자산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한국 부자의 경우에도 본인의 금융지식 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실제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및 거주 주택의 부동산자산의 종류가 많아, 보다 다양한 투자상품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자신의 금융지식이 낮다고 응답한 부자의 경우 현금/수시입출금, 예적금 및 보험상품의 투자 비중이 71.4%로 금융지식이 높다고 응답한 부자 대비 9.7%p 높은 반면, 주식/펀드/채권 등 직접/간접투자의 비중은 금융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지식 수준이 위험자산 투자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련 연구결과에 부합했다.

15) 'Financial Literacy and Stock Market Participation' (Rooji et al. 2007, 10)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 은퇴 등의 영향으로 은퇴 및 노후 준비는 국가적 차원의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은퇴 및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 증대에도 불구하고, 비은퇴 가구의 노후 준비를 종합 평가한 2013년 KB노후준비지수¹⁶⁾는 평균 50.3으로 전년 53.3에서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저금리 환경의 지속, 보유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가치의 하락 등으로 인해 자산 수익률은 감소하는 반면, 평균 수명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축적된 은퇴 자산으로 부담 가능한 기간보다 더 오래 사는 '장수 리스크(Longevity risk)'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부자는 은퇴 및 노후 준비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일반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자.

아직 은퇴하지 않은 부자는 평균 67.4세를 은퇴 시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은퇴한 부자의 은퇴연령인 67.2세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일반 가구에 대한 조사¹⁷⁾에 따르면, 비은퇴 가구의 은퇴 예상연령은 66.1세, 은퇴 가구의 실제 은퇴연령은 61.3세로 부자 대비 낮았는데, 이러한 차이는 부자의 경우 본인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전문직 종사자가 많아 자신이 은퇴시점을 선택할 수 있다는 직업적 특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 중인 부자의 은퇴 예상시점은 67.6세로, 전문직 종사자 66.1세, 공직자/경영관리직 65.8세와 차이를 나타냈다.

OECD 보고서¹⁸⁾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한국인의 실질 은퇴연령은 남성이 71.1세로 멕시코에 이어 가장 높고, 여성은 69.8세로 칠레 다음으로 높아 OECD 회원국 중 공식 은퇴연령과 실제 은퇴연령이 가장 큰 차이를 나타냈는데, 이는 노후 자산의 준비가 충분하지 않아 재취업 등을 통해 근로시기를 연장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직 은퇴하지 않은 직장인 중 퇴직 이후에도 계속 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1%에 달하며, 퇴직 후 일하고 싶은 이유로 '경제

한국 부자들에게 은퇴는 일에서 벗어나 가족 및 지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인생의 제 2막'으로, 은퇴 후에도 본인에게 익숙한 주거 지역 및 형태를 유지하기 원한다.

16) '2013 한국 비은퇴 가구의 노후준비 실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3. 10)

17) 일반 가구의 은퇴연령은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참고

18) 'Statistics on average effective age and official age of retirement' (OECD)

적 이유'의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던 점도¹⁹⁾ 은퇴 전 안정적 노후 준비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한국 부자는 은퇴 후 희망하는 삶의 모습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겠다' 및 '일에서 탈피하여 사회 및 여가 활동을 즐기겠다' 등의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아, 은퇴를 일에서 벗어난 '인생의 제 2막'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일)을 영위하겠다'는 응답이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이는 경제적 이유보다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 뉴욕 시장이자 억만장자인 마이클 블룸버그(Michael Bloomberg)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들이다. 모든 일중독자들 말이다. 물론 은퇴라는 걸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솔직히 난 그게 무슨 의미의 행동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그림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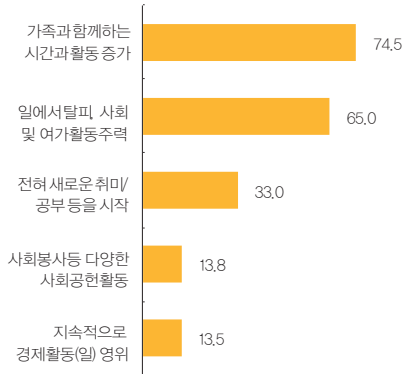
은퇴 후 희망하는 주거형태로는 '현재의 주거 지역 및 형태를 유지'하겠다는 응답이 34.0%로 전년 25.4% 대비 크게 증가한 반면, '도심지역에 살면서 세컨드 하우스 마련', '고급 실버타운 입주' 등은 감소하였는데, 이를 통해 본인에게 친숙한 주거 지역 및 형태를 은퇴 후에도 유지하고자 하는 의향이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37] 한편, 자녀와 함께 살고자 하는 의향을 가진 한국 부자(60세 이상)의 비중은 12.7%로, 2013년 기준 일반인(60세 이상)의 자녀 동거 의향 27.0%²⁰⁾보다 낮았는데, 이는 부모와 자녀 모두 재정적인 측면에서 독립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금융자산 50억원 이상 부자의 자녀 동거의향은 23.4%로, 금융자산이 50억원 미만인 부자에 비해 자녀 동거의향이 오히려 높은 경향을 보였다.

19)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설문조사 결과(2013. 3), 50대 근로자 500명 대상

20) '2013 사회조사'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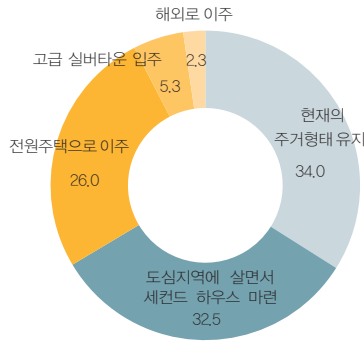
[그림 36] 은퇴 후 희망하는 삶의 모습

(단위: %, 1+2순위)



[그림 37] 은퇴 후 희망 주거형태

(단위: %)



한국 부자는 은퇴 후 ‘적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비를 월평균 688만원(연 8,256만원, 가구 기준) 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아직 은퇴하지 않은 일반가구의 은퇴 후 월평균 적정 생활비 227만원²¹⁾ 대비 약 3배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현재 부자가구의 연평균 소득 3억1천만원 중 근로소득을 제외한 ‘부동산/이자/배당소득(재산소득)’ 및 ‘기타소득’의 합이 연 1억3천만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부자가구의 은퇴 후 월평균 생활비는 근로소득 없이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규모이다. 따라서 한국 부자에게 있어 노후 준비란 현재 보유 중인 자산 가치의 안정적 성장 및 관리를 통해 어떻게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은퇴 및 노후 준비의 핵심 장애요인에 대한 일반인과의 비교²²⁾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부자는 은퇴 및 노후 준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저금리로 인한 이자소득 감소’, ‘투자 및 사업 실패’ 등 보유 자산의 가치 하락 및 관리 실패 이슈를 상대적으로 높게 꼽은 반면, 일반인은 ‘물가상승에 따른 생활비 부족’, ‘과도한 자녀양육비/교육비’, ‘국민연금 보장기능 약화’ 등 소비지출 증가 및 노후 자산의 안정성 관련 이슈에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그림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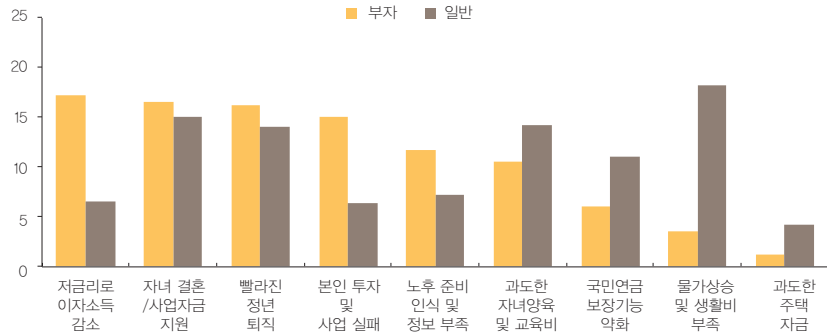
21) '2013 한국 비은퇴 가구의 노후준비 실태' (KB경영연구소, 2013. 10)

22) '2013 한국 비은퇴 가구의 노후준비 실태' (KB경영연구소, 40/50대 응답자 기준)

한국 부자들은 이미 은퇴 후를 대비하기에 충분한 자산을 확보한 상태로, 노후 현금흐름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 투자 의존도를 낮추고 다른 금융자산의 활용률을 높이고 있다.

[그림 38] 은퇴 및 노후 준비의 핵심 장애요인

(단위: %)



한국 부자의 경제적 은퇴 준비 방법은 일반인²³⁾과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일반인은 공적연금/퇴직연금 등 법적으로 강제되는 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반면, 부자의 경우 부동산 및 예적금, 직/간접투자, 보험 등 일반적 투자상품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은퇴를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39] 또한 금융자산 30억원 이상 부자의 부동산 및 직/간접투자 활용 비중은 각각 65.9%, 34.1%로 30억원 미만 부자의 45.8%, 23.4%를 크게 상회하여 보다 적극적인 투자방식을 통해 은퇴 자산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고, 노후 준비를 위해 ‘전문적 자산관리’를 받고 있는 비율도 30억원 미만 부자 대비 높았다. 한국 부자의 은퇴 준비 방법에서 중요한 변화는 전년 대비 부동산의 활용 비중이 크게 감소한 반면, 예적금, 사적연금, 공적연금 등 다른 투자 대안들의 활용 비중이 증가한 점이다²⁴⁾. 이는 2000년대 들어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금융자산 수익률을 하회하고 최근에 그 격차가 보다 확대²⁵⁾됨에 따라 ‘노후 자산 마련의 1순위 대책은 부동산 투자’라는 인식이 점차 희석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 외에도 다른 금융자산의 활용 증대를 통해 분산투자의 효과를 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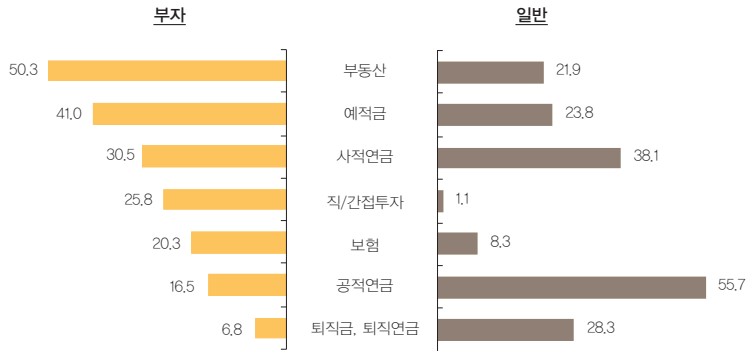
23)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보험연구원), 1+2순위 응답 기준

24) 2013년 한국 부자의 경제적 은퇴 준비 방법(1+2순위 기준): 부동산 66.4%, 직/간접투자 31.6%, 예적금 31.4%, 사적연금 29.4%, 보험 22.4%, 공적연금 11.4%, 퇴직금/퇴직연금 3.3% ('2013 한국 富者 보고서' , KB경영연구소)

25) 'The 100' (우리투자증권, 2013. 3). 세금/배당/임대료 미포함. 부동산은 전국기준

[그림 39] 경제적 은퇴 준비 방법

(단위: %, 1+2순위)



으로써 은퇴 자산의 적정 수익률 확보 및 안정성 제고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03

상속 · 증여에 대한 인식과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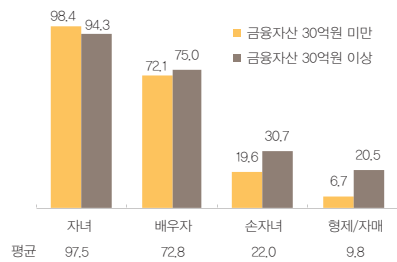
상속 및 증여 대상으로 '배우자'를 고려하는 한국 부자의 비율이 증가하여 자산 형성 시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경향이 커졌다.

록펠러(John D. Rockefeller), 카네기(Andrew Carnegie)와 함께 미국 역사상 최대 부자 중 한명인 철도왕 밴더빌트(Cornelius Vanderbilt)가 1877년 사망했을 때 그가 남긴 재산은 1억 달러였는데, 이는 당시 미국 국립은행들의 총 예금액 8억3400만 달러의 10%가 넘는 액수였다. 약 100년 후인 1973년 그가 세운 밴더빌트 대학교에 후손 120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재산이 100만 달러가 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²⁶⁾ 이처럼 막대한 부를 소유한 가문도 그 부를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부의 지속을 위해서는 현명한 상속이 요구됨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상속, 증여와 관련하여 한국의 부자들은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한국 부자의 경우, 보유 자산을 '자녀'에게 상속 및 증여하겠다고 응답한 비중이 97.5%로 가장 높았으며, '배우자' 72.8%, '손자녀' 22.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40] 특히 '배우자'를 상속 및 증여 대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전년 대비 7.7%p 증가하였는데, 이는 자산 형성 시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자녀 수와 관계없이 배우자 상속분을 50% 우선 배정하는 2014년 상속법 개정안의 취지와 의미를 같이하고 있다. 미국 및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 배우자에 대한 재산 이전은 '비과세'를 원칙(Spousal exemption)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 세대간의 상속 및 증여에 대한 세금 부담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 규모별로 보면 금융자산 30억원 이상 부자는 '손자녀'와 '형제/자매'를 상속 및 증여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30억원 미만 부자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상속 및 증여 방법에서는 전체의 60.5%가 '자산의 일부는 사전 증여하고 일

[그림 40] 상속 및 증여 대상 (단위: %, 복수응답)



26) '빌게이츠식 상속' (조선일보, 2011. 6. 16)

부는 사후 상속하겠다'고 응답해 대다수가 상속과 증여를 함께 고려하고 있으며, '전부 사후 상속하겠다'(28.8%)와 '전부 사전 증여하겠다'(9.0%)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림41] 작년과 비교해서는 '전부 사후 상속'의 비중은 9.4%p 감소한 반면 '자산의 일부 증여, 일부 상속' 및 '전부 사전 증여'의 비중은 증가하여, 사후가 아닌 자녀가 필요로 하는 시점에 일정 부분의 재산을 나누어 주려는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금융자산 30억원 미만 부자에 비해 금융자산 30억원 이상 부자에게서 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본인 사망 전 적당한 시기에 증여하려는 의향이 사후 상속 의향 대비 약 1.7배 더 높은 일반인 조사 결과²⁷⁾와 비교했을 때, 부자의 사후 상속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응답은 1.8% 수준으로 여전히 낮은 모습을 보였다.

상속 및 증여 자산유형은 '현금 및 이에 상응하는 금융상품'의 비중이 77.3%로 조사 시작 후 처음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부동산'은 전년 대비 13.3%p 감소한 72.8%를 기록, 부동산의 투자 매력도 하락이 상속 및 증여 자산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42] 또한 지난해와 비교할 때 2억 초과 상속형 즉시연금의 비과세 종료 등으로 인해 '보험'을 활용한 상속 의향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동산신탁', '재산신탁' 등의 활용 의향은 다른 수단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이나, 2012년 신탁법 개정 전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신탁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유언대용신탁(상속형 신탁)²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생존 시에 자산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고 사망 시에는 신탁상 정해진 바에 따라 자산을 승계하여 유산을 둘러싼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 부자의 유언대용신탁 가입 의향은 43.8%로 비가입 의향 31.5%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금융자산 50억원 이상 부자의 경우 54.7%의 가입 의향을 보여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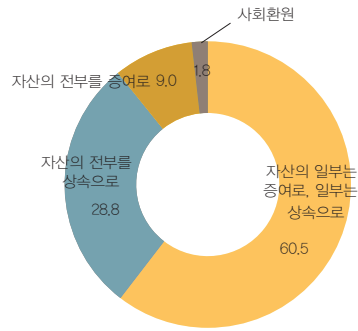
상속 및 증여 방법으로 '부동산'을 고려하는 비중이 감소한 반면 '현금 및 이에 상응하는 금융상품'의 활용 의향이 가장 높았고,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관심도 높은 수준이다.

27)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유산상속 동기변화 전망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28) 위탁자가 생존에 수탁자(금융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자의 생존에는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하고, 사후에는 배우자, 자녀, 제3자 등을 수익자로 지정하는 신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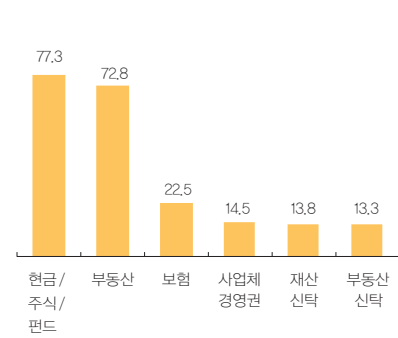
[그림 41] 상속 및 증여 방법

(단위: %)



[그림 42] 상속 및 증여 자산유형

(단위: %, 복수응답)



또한 상속 및 증여 방법과 자산유형과의 교차분석에 따르면, '부동산신탁'은 '전부 사후 상속'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재산신탁'은 '전부 사전 증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재산신탁' 및 '보험'의 경우 지난해에는 사후 상속 의향이 사전 증여 대비 압도적으로 높았던 반면 이번 조사에서는 사전 증여 의향이 사후 상속보다 높아, 사전 증여에 대한 선호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Part

IV

소득 및 소비 특성과 사회 인식

부자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평균 소득은 6배 높은 반면 월평균 소비지출은 4배 높아, 투자 및 추가적 소비여력이 월등히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자가구 및 일반가구 모두 자녀 교육비의 비중이 과거 대비 하락하는 추세이나, 교육대상 자녀가 있는 부자가구의 월평균 자녀 교육비는 약 329만원으로 전체 소비지출의 28.1%를 차지해 여전히 고가(高價)의 자녀 교육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한국 부자의 경우 성장과 복지 중 '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다수의 견이나, 이러한 인식은 전년 대비 12%p 감소해 복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자녀 세대의 계층 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한국 부자의 비율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해, 본인 세대보다 자녀 세대의 계층 이동 가능성이 더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부자의 사회공헌 활동 참여율은 44.3%로 전년 대비 상승하였고, 일반인의 참여율 42.5%을 소폭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부자들이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사회공헌 단체에 대한 불신' 및 '세금공제 혜택' 등 관련 정책이 부족하다는 응답률이 전년 대비 증가,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소득 및 소비지출

2.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인식과 사회공헌

01

소득 및 소비지출

2013년 민간 소비지출(실질)은 국내총생산(실질GDP)의 49.3%인 681조원으로, 국가 경제의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민간 소비지출의 증가는 국내 산업의 생산 증가로 연결되고, 이로 인해 기업의 일자리가 늘어나며, 이는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져 다시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하지만 2011년 이전에는 소득 증가율과 소비증가율이 유사한 추세를 보였으나, 이후 가계 소비지출의 감소와 함께 소비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지속적으로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²⁹⁾ 특히 고소득층의 경우 충분한 소비여력에 비해 소비지출이 꾸준히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으므로, 소비지출에 대한 인식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렇다면 한국 부자의 소득 및 소비지출 특성과 인식은 어떠한지, 일반인과는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자.

‘2014 한국 고자산가 투자행태 조사’를 통해 응답한 부자가구의 연소득 평균은 3억1천만원(중앙값 2억원)으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통한 일반 도시가구(2인 이상 전체가구 대상, 이하 ‘일반가구’)의 2013년 연소득 평균인 5천만원을 크게 상회했다. 또한 부자 중에서도 금융자산 보유규모 상위 그룹(금융자산 30억원 이상)의 연소득 평균은 4억3천만원으로 하위 그룹(금융자산 30억원 미만)의 연소득 평균 2억7천만원에 비해 크게 높았다.

2013년은 가계소득 증가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최저치인 2.1%를, 가계 소비지출 증가율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최저치인 0.9%를 기록했다.³⁰⁾ 이러한 가계 소득 및 소비지출의 정체는 영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체를 운영 중인 한국 부자의 매출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사업체를 운영 중인 부자 중 2012년 대비 2013년 매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2.1%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 25.6%보다 낮았다. 특히 개인 사업자(자영업자)의 경우 2012년 대비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중이 27.0%로 전년 대비 11.6%p 증가한 반면,

부자가구의
평균 소득은
일반가구의 6배를
상회하나 소비지출은
4배 높은 수준으로,
일반가구 대비 충분한
투자 및 소비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

29) 전국 2인 이상 전체가구 실질 가처분소득 및 소비지출 기준(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30) '2013년 연간 가계동향'(통계청), 명목 연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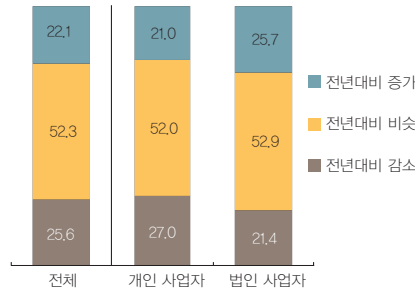
매출이 감소한 법인 사업자의 비중은 전년 대비 2.2%p 감소해, 소비지출 침체의 여파가 개인 사업자에게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림43]

소득의 구성 측면에서 일반가구와 부자가구는 여전히 명확한 차이를 나타냈다. 일반가구는 급여 및 사업소득을 포함한 '근로소득'의 비중이 87.1%

로 매우 높고 부동산·이자·배당소득을 포함한 '재산소득'의 비중은 0.5%에 불과한 반면, 부자가구는 '재산소득'의 비중이 35.5%로 높았다. 하지만 부자가구의 '근로소득' 비중은 전년 대비 상승한 57.3%로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재산소득' 비중은 전년 대비 1.8%p 하락함으로써, 투자수익률이 근로소득 및 사업수익률에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44] 또한 총자산 100억원 이상 부자의 '재산소득' 비중은 49.3%로 총자산 50억원 미만 부자의 28.8%를 크게 상회하는 등 보유 자산의 규모가 클수록 재산소득의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는 풍부한 실물 및 금융자산을 통해 다양한 원천의 소득 창출이 가능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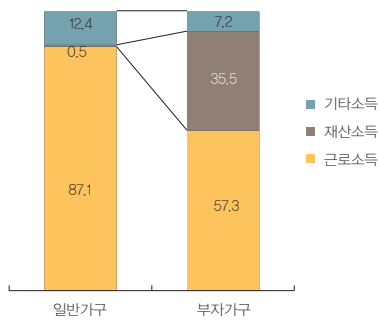
[그림 43] 사업체 운영자 2013년 매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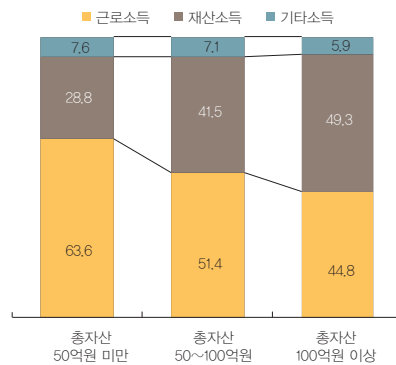
[그림 44] 가구별 소득 구성 비교

(단위: %)



[그림 45] 총자산 규모별 소득 구성

(단위: %)



교육대상 자녀가 있는 부자가구의 경우 자녀 교육비가 전체 소비지출의 28%를 차지할 만큼 자녀 교육에 적극 투자한다.

가구별 소비지출 규모를 비교해 보면, ‘2014 한국 고자산가 투자행태 조사’를 통해 응답한 부자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022만원(중앙값 900만원)으로 일반가구의 2013년 월평균 소비지출³¹⁾ 251만원 대비 약 4.1배 높았다. [그림46] 하지만 부자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34만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일반가구 중 소득 10분위(상위 10%)³²⁾의 2013년 월평균 소비지출이 2012년 대비 감소한 흐름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또한 부자 중에서도 금융자산 보유규모 상위 그룹(금융자산 30억원 이상)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201만원으로 하위 그룹(금융자산 30억원 미만)의 월평균 소비지출 971만원에 비해 높았으나, 두 그룹 간의 소비지출 격차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소비지출의 구성 면에서도 부자가구와 일반가구는 큰 차이를 보이는데, 부자가구는 ‘의류/잡화’, ‘여가/취미’에 대한 지출 비중이 각각 18.4%, 16.2%로 일반가구의 6.8%, 5.6%를 크게 상회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출에 적극적인 반면, 일반가구의 경우 ‘식료품’(14.0%), ‘교통’(12.2%) 등 기본적 생활 유지를 위한 지출 비중이 높았다. 또한 부자가구 및 일반가구 모두 ‘자녀 교육비’의 비중이 과거 대비 하락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17.0%와 11.7%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교육대상 자녀가 있는 부자가구의 월평균 자녀 교육비는 약 329만원으로 전체 소비지출의 28.1%를 차지했으며, 연소득 상위 그룹(연소득 3억원 이상)의 자녀 교육비 비중은 19.3%로 연소득 하위 그룹(연소득 1억5천만원 미만)의 12.7%를 크게 상회하는 등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 교육비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여력이 충분한 부자가구가 사교육 및 해외유학 등 고가(高價)의 자녀 교육에 적극적으로 투자함을 의미한다.

부자가구의 월평균 가계수지(월평균 소득 - 월평균 지출)는 1,517만원으로 일반가구의 월평균 가계수지 170만원³³⁾ 대비 약 9배 높아 부자가구의 투자 및 추가적 소비여력은 일반가구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평균 소비성

31)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3년 1~4분기 평균), 세금/연금/금융비용 등 비소비지출 제외

32)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소득 10분위의 2013년 연소득 평균은 1억2천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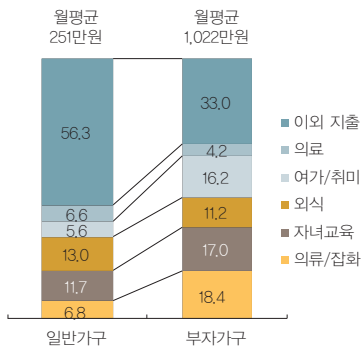
33) 전체 소득 - 소비지출(세금/연금 등 비소비지출 제외), 2013년 1~4분기 평균

향³⁴⁾은 2000년 80.6%에서 2013년 73.5%까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내수 부진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고소득층인 소득 10분위(상위 10%)의 경우 2000년 66.1%에서 2013년 58.6%로 보다 크게 하락했다. '2014 한국 고자산가 투자행태 조사'를 통해 응답한 부자가구의 평균 소비성향은 50.0%³⁵⁾로 가처분소득의 절반만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의 소비여력 중 10%만 추가 소비되어도 신규 일자리는 연간 17만개, 국내총생산은 연평균 약 7.2조원 상승할 것이라는 연구결과³⁶⁾를 볼 때, 소비여력이 충분한 고자산가의 소비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부자가구 중에서도 소득 5분위(상위 20%)의 월평균 가계수지는 4,379만원으로 소득 1분위(하위 20%)의 월평균 가계수지 402만원과 11배 이상의 큰 격차를 보였으며, 일반가구 소득 5분위(상위 20%)의 월평균 가계수지 407만원과도 큰 차이를 나타냈다. [그림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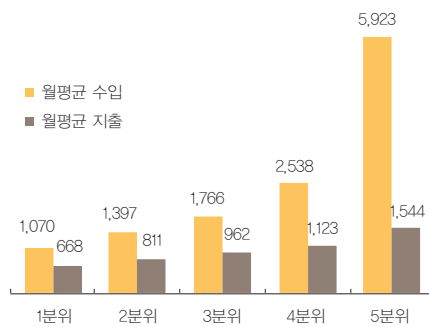
[그림 46] 가구별 소비지출 비교

(단위: %)



[그림 47] 부자가구 소득분위별 가계수지

(단위: 만원)



34) 소비지출 ÷ 가처분소득(소득-비소비지출)

35) 비소비지출을 전체 소득의 20%로 가정(소득 10분위의 비소비지출 비중과 동일 가정)

36) '소득계층별 소비여력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고소득층은 중위소득 150% 이상 계층

02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인식과 사회공헌

부자들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만큼 개인을 넘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이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관점 또한 다양하다. 사회적 이슈에 대한 상이한 관점은 정치적 성향의 차이로 나타나는데, 미국 부자 순위³⁷⁾ 공동 4위를 차지하고 있는 코흐 형제(Charles & David Koch), 285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한 카지노 제왕 셸든 애덜슨(Sheldon Adelson) 등이 대표적인 공화당 지지자인 반면, 헤지펀드를 통해 큰 부를 창출한 조지 소로스(George Soros) 및 제임스 사이몬스(James Simons) 등이 민주당에 거액을 기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법안에 찬성하는 민주당 지지 부자들과 이를 반대하는 공화당 지지 부자들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수억 달러의 자금이 정치인 지원 및 선거 홍보 등에 사용되기도 했다.³⁸⁾ 그렇다면 한국 부자들은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사회의 '성장'과 '복지' 중 보다 중요한 가치를 선택하는 질문에서 한국 부자의 55.8%는 '성장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이는 전년 대비 12%p 감소한 수치이며, '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63.9%인 일반인 조사³⁹⁾에 비해서도 낮아 복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48] 연령별로는 '복지가 더 중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40대 이하 40.8%, 50대 40.2%, 60대 이상 50.7%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고령층의 복지에 대한 인식이 높음으로 해석된다.

복지 정책 중에서도 “복지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없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보편적 복지’와 “복지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제공되어야 한다”는 ‘선택적 복지’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데, 일반인 조사에 따르면 ‘선택적 복지가 바람직하다’는 응답 비율이 다수 의견을 형성하고 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선택적 복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 부자의 경우에도 ‘선택적 복지를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0.8%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연령이

한국 부자에게 성장과 복지 중 '복지'가 보다 중요한 가치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자녀 세대의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낮아졌다.

37) 'The Forbes 400'

38) 'Dark money floods in to US election' (FT, 2014. 5.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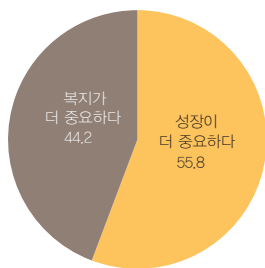
39) '한국형 복지모델의 모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40세 이상 응답자 평균

증가할수록 '선택적 복지'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다.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승 가능성은 사회의 역동성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최근의 연구⁴⁰⁾에 따르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 및 호주, 일본 등은 다음 세대의 계층 이동 가능성이 큰 반면, 미국은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등과 같이 계층 이동 가능성이 매우 낮아 '아메리칸 드림'은 점차 실현되기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 부자와 일반인⁴¹⁾ 간에는 인식의 차이가 뚜렷했는데, 부자는 본인과 자녀 세대 모두 일반인 대비 계층간 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 특히 부자의 49.3%가 본인 세대에서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계층 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인은 28.2%만이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다. [그림 49] 하지만 부자의 경우 자녀 세대의 계층 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년 대비 10.9%p 하락한 46.8%로, 일반인과 달리 본인 세대보다 자녀 세대의 계층 이동 가능성이 더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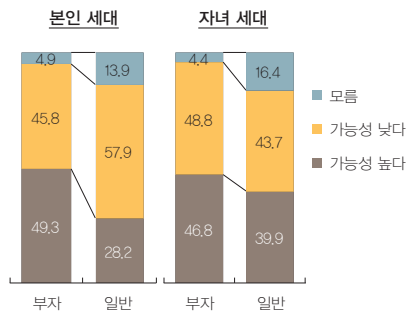
[그림 48] 성장 vs. 복지에 대한 인식

(단위: %)



[그림 49] 계층간 이동 가능성 인식

(단위: %)



40) 'Income Inequality, Equality of Opportunity & Intergenerational Mobility' (M. Corak)

41) '2013 사회조사' (통계청)

한국 부자의
사회공헌
활동 참여율은
일반인 참여율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며,
사회공헌 단체에
대한 신뢰도가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가 사회로부터 얻은 재산을 다시금 사회에 돌려주는 것이 기부 운동에 참여하는 이유입니다.”라는 빌 게이츠(Bill Gates)의 말처럼, 부자들은 자신의 부(富)를 개인의 이익이 아닌 사회의 변화를 위해 활용하고자 적극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는 추세이다. 특히 소셜미디어 페이스북(Facebook) CEO인 30세의 마크 주커버그(Mark Zuckerberg)는 “미국 공립학교들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여 학생들이 평등한 여건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3년에만 총 9억7천만 달러(약 1조원)를 기부하였는데, 이는 그의 2013년 소득의 1/3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지난 1년간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한국 부자는 44.3%로 전년 40.6% 대비 상승하였고, 일반인의 사회공헌 활동 참여율 42.5%⁴²⁾를 상회했다. [그림50] 사회공헌 활동 방법은 ‘현금을 통한 기부’가 79.7%⁴³⁾로 가장 높았으며, ‘물품/식품 등의 현물 기부’가 41.8%로 높았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현물 기부’ 활동 비중은 증가한 반면, 그 외 ‘현금 기부’, ‘직접 봉사활동’, ‘연말 자선 행사 참여’ 등의 활동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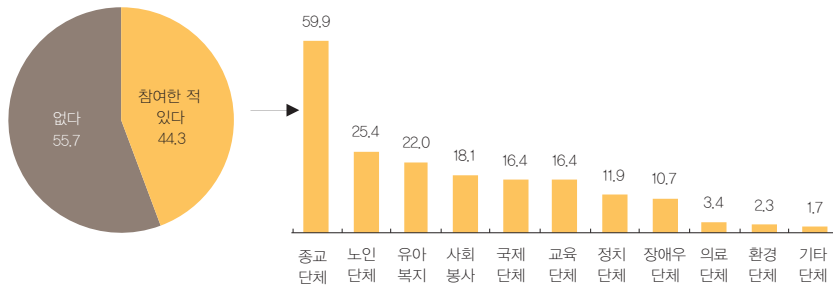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참여 단체로는 ‘종교단체’(59.9%)가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한국노인생활재단’ 등 ‘노인관련 복지단체’(25.4%), ‘세이프더칠드런’ 등 ‘유아동관련 복지단체’(22.0%), ‘사랑의열매’ 등 ‘종합사회복지단체’(18.1%)도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타 국가와 비교할 때 한국의 경우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사회공헌이 주로 이루어지는 점이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전년 대비 ‘종합사회복지단체’, ‘장애우관련 복지단체’, ‘국제기구’ 등의 활동 비중은 하락한 반면, ‘교육기관 및 재단’, ‘유아동관련 복지단체’, ‘정치관련 단체’ 등의 활동 비중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42) '2013 사회조사'(통계청), 기부 및 자원봉사에 한 번이라도 참여한 사람의 비율

43) 복수응답률, 사회공헌 활동 참여 경험자 기준

[그림 50] 최근 1년 내 사회공헌 참여 경험 및 활동 단체

(단위: %, 복수응답)



한국의 개인 기부금 총액은 2006년 5.4조원에서 2012년 7.7조원으로 급성장하며 전체 기부금의 65.3%를 차지, 기업 위주에서 개인 위주의 기부문화로 변모하고 있으나, GDP 대비 개인기부 비율은 약 0.59%(2012년 기준)로 미국, 영국 등의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⁴⁴⁾ 한국 부자 중 기부활동을 하고 있는 비율은 35.3%로 일반인 기부자 비율 32.4%⁴⁵⁾를 상회했으나 지난해 36.2%에 비해서는 다소 낮아졌다. [그림51] 또한 한국 부자 중 기부 경험자의 1년 평균 기부 금액은 1,473만원(중앙값 800만원)으로 일반인 기부 경험자의 기부 금액 21만원과 매우 큰 격차를 보였으며, 지난해 평균 1,323만원보다 증가했다. 이 중 종교단체 기부 경험자의 기부 금액은 999만원으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종교단체 외 기부 경험자의 기부 금액은 1,017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해 조사 시작 후 처음으로 종교단체 평균 기부금액을 앞섰다. 종교단체와 그 외 단체에 모두 기부하는 부자의 경우에는 종교단체에 59%, 그 외 단체에 41%를 기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2년 기준 미국의 기부 총액은 3,160억 달러인 반면, 중국은 129억 달러에 불과했다. 이러한 차이는 중국 부자들이 기부에 인식하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사회공헌 단체들의 신뢰성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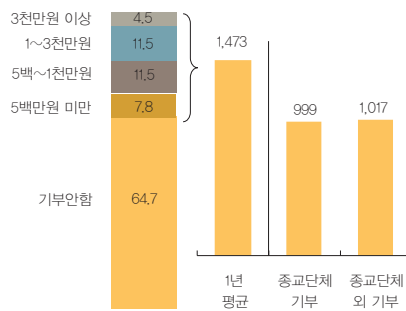
44) '국내 나눔실태 2013'(통계청, 국세청 신고 기준)

45) '2013 사회조사'(통계청, 현금기부 경험자 비율)

의 적십자인 홍십자회는 2008년 쓰촨(四川) 대지진 당시 막대한 구호성금을 모았지만 이에 대한 처리가 불투명해 지탄을 받았고, 2011년엔 귀메이메이(郭美美)라는 젊은 여성이 홍십자회 간부라면서 호화 스포츠카 등 사치품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귀메이메이 스캔들’로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었다.⁴⁶⁾ 한국 부자들이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는 ‘자발적인 마음이 우러나지 않는다’는 응답이 50.7%로 여전히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공헌 단체에 대한 불신’(23.8%) 등을 다른 이유로 들고 있다.[그림 52] 특히 ‘사회공헌 단체에 대한 불신’의 응답률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고, 일반인 조사의 응답률 8.2%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 부자의 경우에도 기부단체에 대한 신뢰성 인식이 악화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세금공제 혜택’ 등 관련 정책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8.5%로 전년 대비 증가했는데, 이는 자산관리 및 투자 결정시 절세 혜택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응답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처럼 기부 활동에서도 세금관련 이슈를 중요하게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 부자들의 개인 기부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사회공헌 단체들의 신뢰성 제고 및 ‘공익신탁’ 등 민간 재산을 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해 사용할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마련 등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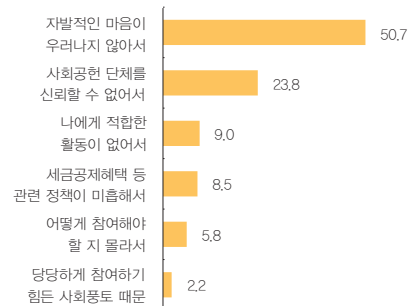
[그림 51] 1년 평균 기부 금액

(단위: %, 만원)



[그림 52] 사회공헌 비참여 이유

(단위: %)



본 보고서에 제시된 ‘2014 한국 고자산가 투자행태 조사’는 시장조사기관 ‘나이스알앤씨(주)’의 자료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보고서 세부 내용은 KB금융그룹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46) ‘Chinese struggle to give away their riches’ (CNN money, 2014. 6. 18)

MEMO

● 정기보고서

일간 KB지식비타민

월간 KB알리지 부동산시장 리뷰
KB금융시장정보
KB골드라이프
KB중국금융시장정보

년간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주간 KB Financial Review

계간 서비스 자영업 경기동향 분석

● 연구발간물

CEO Report	11-03호. 2011년 개인고객 자산관리 시장 여건 변화전망과 KB전략과제 11-04호. 글로벌 인프라투자 및 금융 동향 11-05호. 서울지역 오피스 시장 동향 및 전망 11-06호. 위안화 국제화 진전에 따른 KB 그룹의 Biz 기회 모색 11-07호. 1인가구 급증에 따른 소형 주택 시장의 변화 11-08호. 전세시장 동향 및 구조 변화 11-09호. 국내외 헤지펀드 동향과 KB-Biz 전략 11-10호. 국내 가계부채 현황 및 국제 비교를 통한 위험수준 평가 11-11호. 주요국 퇴직연금제도 비교 분석과 K-Biz 전략 11-12호.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따른 주택시장의 변화 11-13호. 중국 진출 한국 기업 및 금융회사의 중국 내 자금조달 현황과 KB-Biz 전략 11-14호. 주택시장의 투자수익률 분석 11-15호.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도입 영향 및 KB-Biz 전략 11-16호. 글로벌자본 이동과 10개 신흥국의 건전성 분석 11-17호. 베이비붐 세대 은퇴 이후 자산여력 진단 12-01호. 차이나머니의 부상과 KB에 대한 시사점 12-02호. 단독·다세대주택의 주거형태 및 시장동향 분석 12-03호. 중국 부동산 금융과 KB에 대한 시사점 12-04호. 가계부채 고위험군 분석 12-05호. 헤지펀드 운용전략과 한국형 헤지펀드의 성공조건 12-06호. 고령화 시대, 주요국 사례를 통해 본 주택시장 변화 점검 12-07호. 2차 베이비붐 세대 은퇴 대응 현황과 시사점 12-08호. 글로벌 지속성장 금융회사의 기업문화 연구 12-09호. 최근 오피스텔 시장 동향 및 수요 분석 12-10호. 예고 세대의 라이프 금융플랜 분석 13-01호. 위안화 국제화와 위안화 가치 장기 전망 13-02호. 아파트 노후화 진단 및 시사점 13-03호. 국내 전세시장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 진단 13-04호. 국내은행의 순이자이익률(NIM) 개선방안 14-01호. 주택가격 전망 및 주요 이슈 분석	경영정보 Report	11-14호. 브랜드자산(Brand Equity)의 가치 및 제고전략 11-15호. 여성 고객의 가치 이해와 시사점 11-16호. 국내 증권사들의 해외진출 현황 및 과제 : 일본 노무라 사례 포함 11-17호.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CSR)과 전략적 시사점 11-18호. 러시아 경제 및 은행산업 현황 11-19호. 예술품 거래시장과 투자가치 12-01호. 명품 브랜드의 성공요인과 시사점 12-02호. 2011년 금융 히트상품을 통해 본 고객 트렌드 12-03호. 미국 주택시장의 회복 가능성 점검 12-04호. 지역별 주택 경제시장 동향 분석 12-05호.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9개 은행의 대응전략 12-06호. 다문화 사회와 금융 서비스 12-07호. 일본 은행의 수익력 강화를 위한 자금운용 전략 12-08호.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세입자 리스크 분석 12-09호. GCC 국가의 경제 및 산업은행 특징 12-10호. 2012년, 세계 100대 은행 분석 12-11호. KB국민은행의 비이자이익 현황 및 시사점 12-12호. 개인사업자 창·폐업 특성 및 현황 분석 12-13호. 가구 구조 변화에 따른 주거 규모 축소 가능성 진단 12-14호. 카드 CRM을 활용한 고객맞춤형 광고서비스 사업 연구 12-15호. 선진국 대형은행의 경영지표 특징과 수익성 분석 13-01호. 2012년 금융 소비자 트렌드 13-02호. 글로벌 金融危機와 持續生存銀行 (2005~2011년) 13-03호. 싱가포르 은행들의 해외진출 현황 및 전략 13-04호. 글로벌은행, 국내은행 및 국민은행의 경영성과 비교 분석 13-05호. 동아시아 5개국 은행산업 동향 및 규제 현황 13-06호. 일본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전략 13-07호. 금융업의 빅데이터 활용 13-08호. 주택 월세 시장 분석 13-09호. 인도네시아 할부금융시장 현황 및 진출 전략 13-10호. 국내 자영업자 금융안정성 분석 13-11호. 주요국의 주택가격 비교와 시사점 13-12호. 10대 신흥국 건전성 13-13호. 카자흐스탄 경제 및 은행산업 점검 13-14호. 비수도권 주택시장 전망 및 시사점 13-15호. 부동산 간접투자시장 성장 가능성 진단 및 시사점 14-01호. 주요 금융지주 창조경제 추진 현황 및 시사점 14-02호. 상업용 부동산 투자수요 분석 및 전망 14-03호. 커버드론 법제화에 따른 KB의 외화조달 여건 개선 가능성 점검 14-04호. 민간 임대주택사업 확대와 금융권 시사점
CEO Memo	13-02호. 2012년 4대 금융그룹 경영실적 비교 13-03호. 2013년 중국 금융시장 전망 및 국내 전문가 View 13-04호. 최근 펀드판매 채널 혁신논의와 시사점 13-05호. 싱가포르 내 외국계은행 진출현황 및 영업전략 13-06호.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분석 13-07호. 중국 대중부유층(Mass Affluent)현황 및 시사점 13-08호. 4대 금융그룹 경영실적 비교(2013년 1분기) 13-09호. 글로벌 투자은행 전망 13-10호. 가계부채 분포 분석 13-11호. 중국계 은행 글로벌 Biz에 대한 국내 전문가 View 13-12호. 리커노믹스의 함의 및 시사점 13-13호. 2013년 상반기 4대 금융그룹 경영실적 비교 13-14호. 미국 출구전략과 신흥국 금융 리스크 13-15호. 일본은행 해외수익증가와 영업전략 13-16호. 영국의 은행간 계좌 이동제 시행과 시사점 13-17호. 세계경제: 빗장열린 세계화(World Economy : The gated Globe) 13-18호. 4대금융그룹 경영실적 비교(2013년 3분기) 13-19호. 유로존 경기 진단 및 시사점 13-20호. 중국 자산유동화 증권 시장 발전 동향 및 시사점 13-21호. 중공 18기 3중전화의 주요 내용과 평가 14-01호. PB고객의 부동산 투자 성향 분석 14-02호.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출범 이후 중국 금융 개혁개방 전망 14-03호. 다주택자 양도세 증과 폐지 영향 14-04호. 2013년 경쟁그룹 주요 경영실적 비교 14-05호. 2013년 금융권 자금흐름의 특징과 시사점 14-06호. 중국 중속 성장 시대의 경제 정책 방향 14-07호. 위안화 가치 절하 지속에 따른 리스크 요인 점검 14-08호. 중국 그림자금융 리스크 점검 14-09호. 온라인 펀드판매시장 확대 가능성과 시사점	Insight 리포트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 : 분석과 전망(2011. 4) 2011년 하반기 경제 및 환율 전망(2011. 7) 2012년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2011. 12) 2012년 하반기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2012. 6) 2013년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2012. 10)
		KB연구보고서	한국 10대 부자 연구: 자산 형성과 투자행태, 라이프스타일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2012 한국 10대 부자 보고서 KB노후준비지수로 살펴본 한국인 노후준비 실태 상가담보대출자 분석 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 성장과 금융산업 2013 한국 10대 부자 보고서
		e-book	2012년 상반기 금융지식 비타민 2012년 하반기 금융지식 비타민 2013년 상반기 금융지식 비타민 2013년 하반기 금융지식 비타민